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32호 【루계 제25010호】 주체10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온 나라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으로 들끓는다

전반적인 설비조립성과 확대, 발전설비조립 60%계선 도달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건설장에서 설비조립전투성과가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8월에 들어와 발전소완공을 앞당기는데서 결정적고리인 설비조립전투가 발전기실과 옥외변전소, 취수탑건설장에서 본격적으로, 립체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19일현재 발전설비조립이 60%계선에 도달하였다.

주변압기들의 설치가 끝나고 단로기, 차단기들이 하나둘 자리잡는 속에 옥외변전소가 자기의 면모를 완연히 드러내고있다. 방수로수문권양기, 취수구수문권양기설치작업도 적극 추진되여 전반적인 설비조립을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있다.

현장련합지휘부와 인민무력부 현장지휘부에서는 2호발전소의 여러 대상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선 조건에 맞게 8월에 들어와 전반적인 설비조립속도를 높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설비조립을 맡은 여러 단위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일정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중기차, 대형추레라보장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가고있다.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발전설비조립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있다.

사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여러 대상건설장들에서 설비조립이 동시에 벌어지는 속에서도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책임성높고 능력있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현지에 파견한데 이어 사업소적인 힘을 집중하여 후방사업을 강화하고있다. 부기사장을 비롯하여 현지에 전투좌지를 정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높은 목표를 내걸고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설비조립2직장의 로동자들이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으로 타빈과 발전기조립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직장장 최흥진동무와 기계조립작업반의 왕병삼, 김정수동무들이 앞장서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 부분품조립을 진행하고있다. 8월 상순에 타빈안내장치, 작업날개와 타빈축의 동시조립을 끝낸 이곳 작업반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발전기조립전투에서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구조가 매우 복잡한 하부덮개설치와 수평잡기를 며칠사이에 끝내고 지난 16일에는 직경이 수m가 넘는 고정자를 정확히 자기 위치에 들여앉히였다. 용접작업반의 로동자들도 급수, 기름, 랭각수배관들에 대한 까다롭고 어려운 용접작업을 긴장하게 벌리고있다.

배전장치실의 변압기, 단로기, 차단기설치작업을 8월 상순에 기본적으로 결속한 공무직장의 로동자들도 지금 입구변조립전투에 달라붙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들은 구조물들에 대한 기술적료해를 구체적으로 하고 합리적인 조립방법을 찾아낸데 기초하여 2호입구변조립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현지에 달려온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이곳 사업소기능공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련두평수력발전건설사업소 로동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옥외변전소설비조립성과가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지난 8월 상순에 대형변압기들의 설치작업을 끝낸 사업소의 로동자들이 지금 단로기, 차단기교정작업과 철구조물용접작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발전소관련건축공사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모습에서 열백배의 힘과 용기를 얻으며 이들은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여 매일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달려온 로동자들도 설비조립전투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이 취수탑관련설비장치물제작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두달이상의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지난 8월초까지 연 백수십m의 압력관로조립을 끝낸 기업소의 로동자들은 용접의 불꽃을 세차게 날려 얼마전 취수탑가동살창레루조립을 결속하였다. 그 기세로 또다시 돌격전에 진입하여 배사관련 결작업에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발전기실천정기중기조립을 앞당겨 끝내여 발전설비조립을 위한 진격로를 열어놓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도 기세를 올리고있다.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8월 상순에 방수로수문권양기정비를 끝내고 조립작업도 마무리하였다.

이곳 로동자들은 앙양된 그 기세로 취수탑공사완공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드높은 결심밑에 수문 및 가동살창권양기를 현지까지 운반하고 그 조립작업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2호발전소건설장에서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설비조립성과에 크게 고무된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들, 건설자들은 백두대지에 전력생산의 동음이 울려퍼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쑥섬전역에 휘몰아치는 경쟁열풍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서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단위별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건설현장지휘부의 면밀한 작전밑에 시공 및 석재생산단위별로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쟁은 모든 전투원들을 새 기적창조에로 적극 떠미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서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데 이어 쑥섬개발사업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모든 시공 및 석재생산단위들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집단적경쟁의 불길속에 앞선 시공 및 석재생산방법이 적극 도입되고있다.

과학기술전당과 숙소건설을 맡은 여러 시공단위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쑥섬전역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일선참호로 여기고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보온재와 타일붙이기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다그치고있다.

인민군대의 전투적기풍을 본받아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일군들과 아래단위 전투원들은 현장정리를 알뜰히 하면서 건설장의 방대한 구획들에 대한 바닥돌시공에서 창조적위훈을 아로새기고있다.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긍지를 안고 높은 경쟁열의를 발휘해가는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에 의해 지난 17일현재 1만 7천㎡가 훨씬 넘는 면적에 바닥돌이 포장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쑥섬인입다리건설을 맡은 룡해운성과 평양시건설관리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경쟁열의도 대단히 높다. 로선이 제일 긴 인입다리건설을 맡은 룡해운성돌격대 지휘관, 전투원들은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다리구조물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하고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도 쑥섬전역을 위훈의 활무대로 여기고 단계별사회주의경쟁기간 청춘의 기상과 용맹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한편 건설장에서 기동적으로 벌어지는 단기간 사회주의경쟁도 전반적인 공사성과를 확대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룡해운성돌격대,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지휘관, 전투원들은 쑥섬지구의 구획도로로반을 형성하기 위한 단기사회주의경쟁기간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자랑을 떨치였다.

과학기술전당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경쟁열풍은 석재생산보장을 맡은 각지 생산단위들에서도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오석산화강석광산과 룡강화강석광산, 온천화강석광산, 연탄스레트광산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중요대상건설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을 지니고 직장,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드세차게 벌리는 과정에 생산되여 나오는 질좋은 석재를 쑥섬지구로 련이어 실어보내고있다.

보람찬 건설공사와 석재생산전투에서 혁신하는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속에 쑥섬전역에서 우리 당이 펼친 과학기술전당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는 시간과 날이 갈에 따라 눈부신 현실을 낳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세포등판에 사회주의만복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 창조

축산기지건설자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배이상의 먹이풀 생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자랑찬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축산기지건설자들은 당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열의로 가슴끓이며 새 기준, 새 기록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공풀판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배이상 더 많은 먹이풀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루워냈다.

이것은 건설자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는 해발높이가 각이하고 지형이 복잡하며 기후의 차이가 심하므로 먹이풀과 먹이작물배치를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잘하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비배관리방법을 완성하여 그 생산량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중앙현장지휘부 일군들은 당창건 일흔돐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높은 전투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무조건 수행하는데 조직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밝혀주신 승리의 리정표따라 토지개량과 풀판조성작전을 혁신적으로 하고 그 수행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특히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건설자들은 세포등판을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는 사회주의대지로 훌륭히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기어이 실현할 신심드높이 총공격전에 떨쳐나섰다.

인민봉사총국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소석회와 유기질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지력을 높였다. 또한 먹이풀씨뿌리기와 덧뿌리기를 적기에 한데 이어 김매기를 비롯한 비배관리를 알뜰히 하여 1차수확시기 정보당 평균 10여t의 먹이풀을 거두어들이였다.

대흥지도국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좋은 품종의 먹이풀씨를 마련하여 제철에 뿌리였으며 김매기, 병해충피해막이를 비롯한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정보당 먹이풀생산실적을 부쩍 높이였다.

대성지도국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토지개량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축산물생산성과가 좌우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수천t의 각종 토양개량제를 생산하고 정보당 수십t의 유기질비료를 실어냈다. 그리고 풀판조성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먹이풀생산의 좋은 전망을 마련하였다.

평양시와 함경남도, 황해북도, 라선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인공풀판의 여러곳에 우물을 파고 각종 농약과 기재를 준비하여 가물과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과 함께 김매기를 계획대로 내밀면서 여러차례 덧비료주기를 함으로써 먹이풀의 생육조건을 부단히 개선시켰다. 그리하여 정보당 평균 10여t의 먹이풀을 수확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보건성, 룡해운성, 국가자원개발성,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외교단사업총국, 대성은행,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조선대양총회사, 소금공업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 돌격대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이 어려있고 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귀중한 조국땅의 흙 한줌, 풀 한포기도 가슴에 품어안고 후더운 심장으로 가꾸어가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 종전보다 정보당 먹이풀생산량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하였다.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먹이풀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바치였다. 이들은 해당 지역 풀판의 산도측정을 하고 부식질, 질소, 린, 카리함량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중앙현장지휘부 일군들과 함께 현지에 나가 건설자들에게 토지개량을 기술적요구대로 할수 있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이와 함께 풀판조성에 절실히 필요한 먹이풀씨채종방법을 연구완성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들은 풀판에 심을 종자를 자체로 생산보장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받들불타는 열의밑에 채종시기선정을 바로하는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비가 많이 내리는 세포지구에서는 먹이풀씨채종이 곤난하다던 종래의 관례를 깨버리고 올해에만 하여도 건설자들이 수십t의 먹이풀씨를 채종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성장촉진제도입시험을 한데 기초하여 세포지구의 풀판에 필요한것을 선정하였다. 또한 드넓은 풀판에서 땅다루기와 비배관리를 기계화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연구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갔다.

건설자들은 조국해방 일흔돐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자랑안고 세포등판에 사회주의만복을 꽃피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3대혁명전시관 과학기술성과전람관 개관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성과전람관이 3대혁명전시관 전자공업관에 새로 꾸려져 개관되였다.

전람관에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부문을 비롯한 전국과학기술축전과 여러 전시회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600여종에 1 220여점의 첨단 및 지적제품들과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3대혁명전시관을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로 더 잘 꾸릴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시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학술편성과 배렬, 전시대제작을 위한 사업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치였다.

전람관이 개관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성과자료들의 보급과 교류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성국가건설투쟁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되였다.

개관식이 19일에 있었다.

3대혁명전시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개관사를 윤영철 3대혁명전시관 총장이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과학기술성과로 옹호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애국헌신의 로고를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람관이 훌륭히 꾸려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체 인민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는데서 맡겨진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실지 은을 내고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자료들을 더 많이 전시하기 위한 사업들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일군들과 강사, 보급원들은 전람관관리운영과 참관사업을 짜고들어 전시된 제품들의 과학기술적내용과 기술경제적효과성, 도입경험들을 널리 해설선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관을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샤쯔천생산기지가 꾸려졌다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사리원방직공장에 현대적인 샤쯔천생산기지가 새로 훌륭히 꾸려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 국가와 사회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속에서 우리의 새 세대들은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우리 청소년학생들에게 철따라 더 좋은 새 교복을 안겨주자면 교복천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리원방직공장에 현대적인 샤쯔천생산기지를 꾸리도록 하여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사리원방직공장에 샤쯔천생산기지를 꾸리는 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도에서는 강력한 공사지휘부를 조직하고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샤쯔천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 사업을 일정계획대로 진척시켜나갔다.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간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모든 공사를 철저히 설계의 요구대로 하면서 생산현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도송배전부를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사무실과 로동자들을 위한 후생시설들도 잘 꾸려놓아 샤쯔천생산기지가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였다.

공사지휘부에서는 샤쯔천생산기지뿐아니라 사리원방직공장의 여러 생산현장들과 사무실들을 개건보수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물원천을 찾아내고 전기선공사를 와닥닥 해제낌으로써 샤쯔천생산에 필요한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도에서는 새로 천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과 함께 설비조립 및 설치를 위한 전투를 립체적으로 조직하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김영춘, 정춘단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력량과 오랜 기능공들로 설비조립을 위한 력량을 뭇고 그들의 투쟁을 힘껏 떠밀어주었다. 부기사장 김광수, 과장들인 오상준, 김덕수, 설비수리직장 직장장 안익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공기직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의 조립과 설치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자동화실의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 설비조립과 설치기일을 앞당겨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소면기, 련조기, 정방기를 비롯한 방적공정과 풀먹임, 직포, 염색공정 등을 원만히 꾸려놓고 시험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으며 사리원방직공장에 생산능력이 큰 현대적인 샤쯔천생산기지가 새로 꾸려짐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천일

년간 화물수송계획 넘쳐 수행

원산철도분국에서

원산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려 7월말까지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170%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국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일군들과 당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분국의 일군들은 철도성과 함흥철도국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맡겨진 화물수송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또한 기관차와 화차수리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기관차와 화차들의 실동률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배이상 높이도록 하였다.

원산기관차대의 일군들은 직접 복잡한 운행구간들을 밟아본데 기초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기관사들이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도록 수송조직을 짜고들었다.

기관차대의 기관사들은 철길의 기술상태를 환히 꿰들고 그에 맞는 앞선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관차수리를 맡은 로동자들도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이였다.

원산청년객화차대에서는 중대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화차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였으며 검차원들은 화차들에 대한 검차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무사고운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원산철길대에서도 철길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렬차들의 안정성과 통과능력을 높임으로써 분국이 맡은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뜻깊은 올해를 높은 수송성과로 빛내일 결의에 넘쳐 충정의 기적소리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위대한 전승사를 빛내여주는 선군혁명의 만년재보

서포혁명사적지를 찾아서

강철의 령장의 걸출한 위인상 전하는 력사의 땅

평양시 련못동입구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지나 교외로 얼마간 달리느라면 푸른 숲 우거진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서포혁명사적지에 이르게 된다.

오래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곳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력사의 땅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서포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9(1950)년 12월 27일부터 주체40(1951)년 1월 5일까지 계시면서 전쟁승리를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39(1950)년 7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계시면서 백두령장의 비범한 예지와 슬기를 보여주신 뜻깊은 곳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여야 합니다.》

서포혁명사적지는 참으로 묘한 곳에 자리잡고있었다. 큰길에서도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있는 이곳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 지휘소였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김옥이강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에 의해 서포혁명사적지에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세상에 널리 전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는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조국해방전쟁사에 빛발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여 선군혁명전통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시던 최고사령부 지휘소를 찾았다. 수십년 세월이 흘렀어도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붉그스레한 벽돌집이였다. 력사의 지휘소가 안고있는 만단사연을 한시바삐 알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수많은 회의록들과 명령서들이 정중히 전시되여있는 최고사령부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크지 않은 방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수많은 혁명적조치들이 취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는 뜻깊은 사연을 전하는 귀중한 혁명사적물들을 보면서 강사로부터 잊지 못할 그 나날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강군 향하리를 떠나 이곳에 도착하신것은 주체39(1950)년 12월 27일 밤이 퍽 깊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포에 있는 최고사령부 지휘소에 오시여서도 전쟁 제3계단 3차작전의 승리를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안아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50여건의 내각결정과 최고사령관명령을 비준하여주시면서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우리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건들중에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비행기사냥군조조직에 대한 명령서도 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9(1950)년 12월 29일 최고사령관명령으로 하달하신 **《비행기사냥군조를 조직할데 대하여》**는 우리 식의 독특한 전법인 비행기사냥군조운동으로 주체40(1951)년 한해동안에만도 1754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과 관련한 최고사령관명령서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 서포혁명사적지가 사연깊은 근위땅크부대와도 류다른 인연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군사위원회를 소집하시고 해방된 공화국남반부지역 인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책상우에 놓인 락상등과 초물이 흘러내린 굵은 초대를 바라보느라니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헌신의 모습이 눈굽이 찌릿하게 안겨들었다.

강사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전쟁의 첫해 마지막날인 주체39(1950)년 12월 31일이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전전선에 걸쳐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부 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의 일시적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평양에서 1950년을 보내게 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싸움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빨찌산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지난 6개월간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시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지휘관들의 작전지휘능력을 더욱 높이며 인민군대안에 강한 규률과 질서를 확립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모두다 불굴의 투지와 자기희생성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고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장내에서는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이때 한 일군이 들어와 위대한 수령님께 전선에서 전보문이 왔다고 보고드리였다.

전보문을 읽으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방금 전선에서 기쁜 소식이 왔다고, 우리의 인민군부대들이 전전선에 걸쳐 적들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향하여 계속 남진하고있다고, 서울해방도 이제 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전선의 전투성과를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하자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1월 1일 최고사령부 일군들에게 제2차 서울해방과 관련한 작전적방침을 밝혀주시면서 서울을 해방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공격성과를 계속 확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든 인민군군인들은 1월 2일까지는 적의 방어종심으로 15~20km 전진하였으며 주타격방향의 인민군련합부대들은 1월 4일 또다시 서울을 해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인 1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7호 **《서울시 해방에 즈음하여》**를 하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놈들을 밤낮없이 포위공격하며 적의 교통요점들을 타격하며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재들을 소멸하라. 미제침략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인민들을 하루빨리 해방하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서울시해방에 즈음하여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며 서울시해방전투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전체 군무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서울시해방전투에서 쟁취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1월 5일 평양시간으로 20시에 평양과 서울에서 240문의 대포로 각각 24발의 축포를 발사할것이다라고 명령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첫해를 총화한 인민군부대들의 총공격개시와 새해를 맞으며 서울시해방전투를 기념하여 울린 승리의 축포소리,

참으로 서포혁명사적지가 안고있는 력사적의미는 특별하였다. 누군가가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서포혁명사적지는 전쟁의 첫해와 두번째 해의 분수령을 이루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0(1951)년 신년사를 하신 집무실에도 들려보았다. 그이께서 하신 신년사의 내용을 담은 당시의 《로동신문》과 수수한 침대와 책상, 보통의 원탁이 놓여있는 크지 않은 방이였지만 위대한 전승사에 새겨진 우리 수령님의 걸출한 위인상이 숭엄히 빛을 뿌리기에 누구나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지휘소건물을 나서니 인차 갱도가 나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고 영화도 관람하시며 리용하신 갱도라고 한다. 아직 석수가 흐르는 갱도를 돌아보느라니 40여년전 2월 여기 서포혁명사적지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사적지를 돌아보시면서 전쟁시기 자신께서 여기에 계셨다고, 집뒤에 사람이 100명정도 들어갈수 있는 굴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연회도 하였다고 감회깊이 하신 회고의 말씀이 되새겨졌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회를 하시면서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군사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고 강사는 말하였다.

서포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 계신지는 얼마 안되지만 그 기간은 그이께서 지니고계신 천재적인 군사적지략과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 한없이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뚜렷이 보여준 잊지 못할 나날이라는것을 깊이 느끼였다.

우리는 서포혁명사적지에 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던 집도 돌아보았다. 뜻깊은 사연들을 전하는 조선지도와 라지오, 일과표와 교과서 등 귀중한 혁명사적물들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기서 생활하시던 그때 벌써 보여주신 희세의 선군령장, 걸출한 음악대가로서의 뛰여난 천품과 고매한 풍모에 대해 다시금 커다란 감동을 받아안았다.

나어린 소학교학생들까지도 자기들이 배운 《놓아주신 꾀꼴새》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있은 사실이라는것을 알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조국애를 자기들의 작은 가슴에 새겨안고있었다.

서포혁명사적지를 찾은 참관자들은 누구나 이곳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전하는 걸출한 위인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였다.

또 한분의 백두산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전승의 력사는 대를 이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글 본사기자 김 준 혁
사진 본사기자 림 학 락

전화의 나날에 하신 신년사

서포혁명사적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0(1951)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의 내용을 담은 당시의 《로동신문》이 소중히 보존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새해 1951년을 맞이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날의 당보를 바라보는 참관자들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신년사를 하시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무적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우뚝이 안겨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한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신년사!

온 나라 강산에 전쟁의 검은 불구름이 휩싸여있던 력사의 그날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얼마나 커다란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졌던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비상한 열정이 넘쳐흐르는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싸우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더욱 굳게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새해의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미제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시며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은 오늘도 력사의 메아리로 이 땅우에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1951년 설날이 전하는 이야기

전시교육사업을 위하여

주체40(1951)년 1월 1일, 새해의 첫아침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절의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교육부문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일군이 올리는 새해의 인사를 받으시며 그의 건강을 축복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교육사업을 의논해보자고 허물없이 말씀하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교육사업은 매우 영예로운 사업이며 전투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이라고 간곡하게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적들의 폭격이 계속되고 교실이 파괴된 조건에서 전시교육사업을 진행하자면 분산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방도까지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하루빨리 복구하기 위해서는 기술간부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을 채 마치지 못하고 인민군대에 나간 대학생들을 제대시켜 공부시켜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혜안의 예지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가렬한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랑랑한 글소리와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고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게 되였다.

다시 준비한 명절음식

언제나 군인들과 함께 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려운 조건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전사들의 생활에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40(1951)년 새해의 첫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날 새해를 맞이한 인민군군인들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명절날 무엇을 해먹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변변치 못한 식사때문에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군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아무리 생활이 곤난하여도 설날아침에 이렇게 먹게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명절음식을 다시 잘 준비하여 군인들에게 먹일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전화의 나날에도 군인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군인들에게 보내주신 축전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싸우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에게 안겨주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은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낳게 한 원천으로 되였다.

온 나라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축복을 받으셔야 할 뜻깊은 새해의 그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민군장병들에게 먼저 새해축전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전에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영용하게 싸워온 각 군단 군단장동무들과 전체 장령, 군관, 하사관, 전사들에게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새로운 승리와 커다란 성과를 쟁취할것을 확신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영웅적투쟁과 새로운 승리의 해 1951년을 맞으며 우리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주신 새해축전,

여기에는 오직 전쟁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고있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미제원쑤들과의 치렬한 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것을 격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뜨겁게 담겨져있었다.

전 광 남

천출명장의 탄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전쟁이 시작되여 처음 맞는 조국해방의 날인 주체39(1950)년 8월 15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포에 있는 지휘소를 찾으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령장으로서의 비범한 슬기와 담력을 키워가고계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활하시는 방으로 들어서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벽에 걸려있는 류다른 조선지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크고작은 빨간 별들과 날자들, 여러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간 화살표들이 있는 조선지도는 첫눈에도 전선형편을 환하게 알수 있었다. 말그대로 작전지도와 다름이 없었다.

이 조선지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라지오로 매일 최고사령부보도를 꼭꼭 들으시고 우리 인민군대가 공화국남반부의 새로운 지역들을 해방하였다는 소식이 나오면 빨간 별과 색연필로 표시하시면서 작성하신것이였다. 조선지도를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지금 우리 인민군대가 어디까지 해방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도앞으로 다가가시여 금천, 왜관까지 해방하였다고 하시면서 지금 인민군부대들은 락동강을 건느고있다고 말씀드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고 또다시 대전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도를 가리키시며 여기 평택이라는 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대전이 있다고, 대전은 지난 7월 20일 낮 12시에 해방되였다고 대답올리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한동안 호탕하게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도우에 부채살처럼 뻗어나간 화살표식들에 대해 다시금 물으시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명령을 받은 인민군군인들이 부산으로 공격하는 길이라고, 부산까지 밀고나가면 큰 놈을 잡을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올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이 방에 대단한 전선사령관이 있구만. 벌써 부산해방작전까지 준비하고있단 말이지.》**라고 하시며 또다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대단한 전선사령관,

전화의 나날 아직 10대에도 이르시지 못한 그 시절에 벌써 전쟁형편을 환하게 꿰드시고 자신의 일가견을 세워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장으로서의 남다른 천품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탄복을 금치 못하시였다.

사진의 라지오와 조선지도는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신 귀중한 혁명사적물들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유자녀들과 함께 보내신 밤

서포혁명사적지에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포화속에서도 대를 이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부강조국건설의 믿음직한 주인공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후대사랑을 전하여주는 감동깊은 이야기가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이 일어번졌던 주체39(1950)년의 12월도 다 저물어가던 밤이였다.

이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혁명가유자녀들은 너무 기뻐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크나큰 격정과 기쁨에 넘쳐있는 혁명가유자녀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래일이 설날인데 우리와 함께 싸우면서 수고하는 동무들과 식사나 나누자고 불렀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한없는 육친의 사랑과 정이 흘러넘치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유자녀들의 가슴은 마냥 뜨겁게 달아올랐다.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훌륭한 역군으로 억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혁명가유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에 혁명가유자녀들모두는 눈시울을 적시고 또 적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혁명가유자녀들 한사람한사람을 일별하시며 몸소 자리에도 앉혀주시고 그들에게 손수 음식들도 권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을 더없이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부모들의 뒤를 이어 혁명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피어린 항일의 나날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녀투사들의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뜻깊은 이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이 준비한 소박한 노래도 들어주시고 오락회도 보아주시며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였다.

정녕 사랑하는 혁명가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당과 수령을 알고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해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참된 투사들로, 쇠소리나는 쟁쟁한 역군들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주체39(1950)년의 12월 마지막날에도 뜨겁게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최고사령부 지휘소에서

꺼지지 않은 초불

참관자들 그 누구나 최고사령부 회의실의 책상우에 놓여있는 초대앞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한방울 또 한방울 흘러내린 초물이 배인 초들을 고이 안은 수수한 초대,

그 누구나의 가슴에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팍 차오른다. 그 초불이 비쳐지는 지점마다에서 백전백승의 화살표들이 적진으로, 적의 아성으로 총창처럼 뻗어나가지 않았던가.

그 초불과 더불어 우리 수령님께서는 가렬한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벌써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시며 부강조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도 그리시였으리라.

그 초대에서 타오른 초불은 그대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침략자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거세찬 불길로, 전승의 축포성으로 이어졌다.

참관자들 그 누구에게나 책상우에 놓인 초대가 무심히 안겨오지 않는다.

오늘도 초불은 활활 타오르는 듯싶다.

성스러운 이 땅우에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길이 전하며,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노도쳐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며.

색연필을 보며

최고사령부 집무실의 책상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용하시던 색연필이 소중히 보존되여있다.

참관자들은 누구나 이 색연필을 드시고 작전도우에 원쑤격멸의 화살표, 백전백승의 화살표를 쭉쭉 그으시던 강철의 령장의 거룩하신 모습이 우뚝이 안겨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한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에게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시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

무릇 전쟁이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군사가들의 예지와 작전술, 령군술의 대결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제가 적용한 모든 전략과 전술, 작전들은 서방세계에서 제노라고 우쭐렁거리는 수많은 책략가들과 악명높은 호전장군들이 달라붙어 작성한것들이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들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시는 승리의 화살표앞에서 물거품으로 되고말았다.

정녕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담력과 배짱, 지략과 령군술에 있어서 이 세상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걸출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여 이룩된 력사의 기적이였음을 오늘도 최고사령부 집무실의 색연필은 다 말해주고있는것 아니랴.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 철 남

군국주의부활에 광분하는 아베일당에게 경종을 울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지난 14일 일본수상 아베가 《태평양전쟁패전 70년 담화》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일본수상관저에서 진행된 각료회의에서는 아베의 이 《담화》를 정부의 공식립장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일제의 패전 70년과 관련한 아베의 《담화》는 마땅히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영원히 가셔지지 않을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끼친 피비린 죄악의 과거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석고대죄로 일관됐어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아베의 《담화》는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담화》내용이 일본의 죄과를 한사코 회피하고 무작정 덮어버리며 어떻게 하나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려는 흉심으로 가득차있었기때문이다.

아베는 우선 《담화》에서 19세기에 서양나라들의 식민지지배의 여파가 아시아에도 들이닥치고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발생하여 커다란 타격을 받은 속에서 일본은 대세를 따라 《힘의 행사》로 이를 극복할 목적으로 《전쟁에로의 길에 나섰다.》는 식으로 일본의 해외침략이 불가피한 선택인듯이 합리화해나섰다.

더구나 《어떤 행위가 침략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서는 력사가들의 론의에 맡겨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2년전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있지 않다.》고 떠벌인 망언이 불변의 립장임을 꺼리낌없이 공개하였다.

이것은 과거죄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로골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다.

아베는 후안무치하게도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떠벌이면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더는 없다는것을 공공연히 줴쳐대기도 하였다.

그것으로 력사외곡을 국책으로 정하고 과거죄행을 미화분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있는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인류에게 피해를 입힌 전범죄에는 시효가 있을수 없다.

죄악에 찬 과거의 반성은 결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장난거리가 아니다.

오만방자한 아베는 과거를 어물쩍해버리고 마치 일본이 패망후에는 《평화국가》로서 《부전의 맹세》를 견지해오고 어떠한 분쟁도 반대하였으며 《법의 지배를 존중》해오는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왔다고 력설해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 무슨 《적극적 평화주의》와 《국제협조주의》의 기치를 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설을 늘어놓았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하게 저지른 죄악을 은폐, 축소, 회피한 아베의 《담화》는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국제적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지금 세계는 일본을 대변하는 아베의 몰골을 통해 어제날의 파쑈일제나 오늘의 일본반동들이나 파렴치하고 간특하고 악착스럽기 이를데 없는 사무라이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있다.

일본국내에서도 《사죄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기만적인 내용》, 《인용의 형태로 언급하여 총리의 생각을 묻어둔 담화》, 《력사인식을 바꾸려는 의도》라는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으며 제3국에서도 《일본의 죄과를 인정한 무라야마담화에서 완전히 후퇴한 언어적말장난》으로 혹평하였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조차 《불충분한 사과》라는 평이 쏟아지고 괴뢰들마저 과거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대신 《외교적수사로 책임회피에만 골몰한 담화》라고 비난하였겠는가.

《담화》를 발표한 아베는 패전국의 수장으로서 짓수그린 몰골이 아니라 마치 대가리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독을 내뿜는 일본산독사 그대로였다.

지난날 일제에 의해 형언할수 없는 참혹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당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치솟고있다.

왜나라 오랑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비법적인 강점과 40여년간의 중세기적인 식민지통치기간 저지른 만고대죄는 그 언제가도 지울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산천이 변한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가 100여만명의 무고한 생명을 도륙내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여 살인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20만명의 애젊은 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반인류범죄를 잊을수 있겠는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반만년력사와 전통은 물론 조선의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말살하려는 악독한 조선민족말살정책도, 단군조선의 기를 꺾어놓으려고 수려한 산천의 곳곳을 싸다니며 쇠말뚝을 박아놓은 상상밖의 죄악도,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마저 강탈하여 흐르는 세월마저 일본의것으로 만들려 한 간악한 책동도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포악한것이였다.

일본이 저지른 반인류적인 범죄는 비단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동북일대와 관내를 포함한 광활한 중국대륙을 비롯한 아시아의 곳곳에서 감행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천추의 한을 남긴 전대미문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력사의 락엽속에 덮어버리려고 온갖 권모술수에 매달린 아베는 간교성과 호전성이 혈통으로 유전되고 극우익반동사상을 정치신조로 체질화한 현대판 사무라이의 전형이다.

돌이켜보면 아베가 재침주로로 질주하는 군국주의마차의 마부자리를 차지하자마자 달라붙은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그 어떤 무력적인 위협이나 사용도 할수 없으며 군대를 절대로 가질수 없게 된 전범국, 패전국으로서 법적지위권을 전면부정하는 헌법개정이였다.

동시에 《주변유사시법》, 《유사시관련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을 비롯하여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닦아놓고 그 실현을 위해 항공모함타격단에 의한 대양진출, 최신예전략항공수단에 의한 작전령역확대, 《국제평화지원》의 명분에 의한 세계적진출 등 국제적판도에서 군국주의재침책동을 부단히 확대해왔다.

지난 세기 전 조선반도와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을 집어삼키고 《동방의 맹주》로 군림하겠다고 으르렁대던 군국주의일본은 오늘날 전쟁국가부활에 환장이 되여 형식상의 《비핵3원칙》마저 다 줴버리고 핵무장화를 시도할 정도로 분별을 잃고있다.

특히 일본의 재침책동은 우리 공화국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기어이 타고앉을 야심에서 보다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예측할수 없는 핵으로 무장한 북조선의 위협》을 떠들며 지난 4월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을 조작해내고 《〈집단적자위권〉 발동》을 통한 조선반도유사시개입의 명분과 군사적조건도 이미 완비하여놓았다.

죄악에 찬 과거의 연장인 반인류적이고 반평화적인 70년 력사를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로 미화분식한 아베의 《담화》야말로 군국주의일본의 극악무도한 흉체를 드러낸 독기어린 악담이다.

군국주의일본은 크게 오산하고있다.

패전의 부인은 패전의 답습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아베가 죄악으로 가득찬 과거의 일본침략사에서 뻐저린 교훈을 찾기는커녕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에 사로잡혀있을수록 차례질것은 력사의 무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년숙적 일본반동들에게 천백배의 피값을 대를 이어가며 반드시 무조건 받아낼것이다.

천추만대를 두고서라도 일본으로부터 기어이 사죄와 배상은 물론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어떻게 받아내는가는 시간이 증명해보일것이다.

과거는 현재를 비쳐주고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하였다.

잘못된 과거에서 현재의 오유를 시정하고 새 출발을 할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전패국, 전범국으로서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범죄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할 국가적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나라로 남아있을수록, 일본특유의 간교성 그대로 회피와 모면으로 력사에서 과거를 지워버리려고 요술을 부릴수록 70년전에 당한 참패보다 몇갑절 더 처절한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교활하게도 미국에는 과거죄악에 대해 속죄의 흉내를 내는것으로 어물쩍해버리고 우리 민족과 아시아인민들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오그랑수따위는 애당초 버려야 한다.

아무리 미국에 매달려도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난쟁이의 나라이며 경제적으로는 부풀었던 비누거품이 사그라지기 시작한 몰락의 나라이다.

인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지는해의 처지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행성에서 영원히 꺼져내리는 악몽같은 비운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아베는 우리 인민과 인류앞에 무릎꿇고 저지른 만고대죄에 대해 무조건 사죄하고 성근히 배상하는것으로 죄악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실천적의지를 보여야 한다.

세계를 향한 재침의 독을 내뿜는 군국주의독사 아베와 일본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것이 파멸에로 질주하는 일본을 구원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군국주의독사인 아베와 일본은 이 엄숙한 경고앞에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9일

평 양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하면 기적을 창조한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격전의 승리를 담보하는 백두전역의 척후병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량강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시간을 다투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는 백두전역, 불꽃튀는 격전의 낮과 밤이 이어지는 여기 발전소건설장에서 척후병의 영예를 자랑스럽게 빛내여가는 청년전위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건설장에 필요한 세멘트상하차작업을 전적으로 맡아 수행하고있는 량강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이다.

려단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불과 석달 남짓한 기간에 백암청년역에 도착한 근 5만t의 세멘트를 지체없이 부리우고 좁은철길용화차들과 자동차들에 실음으로써 1호언제를 비롯한 수많은 건설대상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이후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의 어깨우에 몇갑절 더 무거운 짐을 스스로 걸머졌다.

기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도 당을 따르는 우리 청년들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다. 백두전역에 총포탄을 나르는 심정으로 결사전을 벌리자.

모두가 이런 사상적각오밑에 떨쳐나섰고 그날부터 백암청년역은 불도가니로 화했다. 련속 들이닥치는 철도차량들에 번개같이 뛰여올라 세멘트를 부리우는 청년들, 50kg짜리 마대를 메고도 비탈진 발판을 한두걸음에 뛰여내리는 대원들, 언제나 돌격대원들의 앞장에서 달리는 려단의 지휘관들, 전투장을 들썩하게 울리며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백배로 더해주는 화선식정치사업…

그 나날 돌격대원들의 앞을 막아나선 애로와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할수 없었다. 온종일 무거운 세멘트마대를 메고 발판을 오르내리고 나면 서있을 맥조차 없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더해주는 세멘트차량의 열기는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그것은 청춘의 투지와 열정을 검열하는 하나의 시험일뿐이였다.

지난 6월 17일, 1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과 려단지휘부성원들까지 총동원되여 쉴새없이 들어오는 세멘트상하차로 온 려단이 끓어번지고 있었다.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중단없이 진행된 작업으로 하여 모든 대원들의 육체적능력은 한계를 넘어섰다. 그들이 나른 세멘트량은 이미 하루정량의 3배이상이였다. 작업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섰을무렵 려단에는 휴식이 선포되였다.

마지막차량에 대한 작업조직을 하고난 려단장 전남선동무는 작업장을 돌아보다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쯤 모두 지쳐 끓아떨어진줄 알았던 청년돌격대원들이 오락회를 펼쳐놓았던것이다. 다른 한켠에서는 둥그렇게 벌려서서 씨름라게 배구공을 치고있었다.

청춘의 랑만과 열정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물리치는 명약이였던것이다.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야 무엇이 두려우랴. 돌격대원들은 앙양된 그 기세로 마지막차량의 세멘트까지 단숨에 운반함으로써 하루 840t의 세멘트를 처리하는 최고기록을 세웠다.

우리가 잠시라도 지체하면 건설장의 숨결이 멎는다. 모두가 이런 결사의 의지를 안고 분발하여 6월 4일부터 보름동안에 백암청년역에 들어온 1만t이상의 세멘트를 제때에 부리우고 좁은철길용화차들과 자동차들에 실어보내였다. 지난해 1년동안에 신고부린 세멘트량에 비해볼때 이 수자는 현장련합지휘부와 백암철도분국의 일군들도 경이적이라고 표현할만큼 놀라운 수자가 아닐수 없었다. 백암청년역에 물동량이 집중되는것을 걱정하며 거리가 먼 다른 철도역으로 일부 세멘트를 뽑을 작전을 펼치던 해당부문 일군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과연 백두청춘들의 일솜씨가 다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려단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다. 백암청년역에 전투진지를 차지한 현장련합지휘부 일군들인 정성국, 서정국동무들과 려단장 전남선동무는 넓은철길로 들어온 화차들을 더 빨리 뽑을 방도를 찾아 사색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그 나날에 역주변의 지형지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두 통로의 세멘트하차대를 설치할 혁신적방안이 나왔다. 지체없이 필요한 자재들이 마련되였고 불과 며칠만에 새로운 세멘트하차대가 일떠섰다.

결과 자동차 한대당 2시간이상 걸리던 짐싣기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들었고 한차량의 세멘트를 한시간도 못되여 부리우는 새 기적이 창조되였다.

기적창조의 불길은 백암청년역에서만 타오르지 않았다.

굴송역의 세멘트상하차작업을 맡은 3대대와 백암청년역과 굴송역 세멘트호송임무를 맡은 2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의 삶과 투쟁의 지향도 오직 《더 빨리!》라는 하나의 목표에로 집중되였다. 백암청년역에서 언제건설장까지의 백수십리구간의 도로보수를 맡은 4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전시수송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산세험하고 구배가 심한 령길마다에서 누가 보건말건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

이곳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위훈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백두대지의 드넓은 건설장의 숨결을 앞장서 지켜가는 미더운 척후병들, 언제건설의 선행공정도 우리가 맡고 조국의 큰 짐도 앞장에서 떠메고나갈 남다른 결심밑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이런 청년전위들이 있어 완공의 그날은 더더욱 앞당겨지고있다.

송전선공사를 제일먼저 끝낸 함경남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살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로부터 삼지연까지의 구간을 가로지르며 은백색철탑들이 뿌리내리고 연 수백km의 전선들이 뻗어나갔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불과 석달 남짓한 기간에 송전선공사를 완공한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위훈창조의 앞장에는 제일 어려운 구간의 송전선공사를 맡아 최단기간내에 끝낸 함경남도송배전부의 로동자들이 서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하순 도송배전부에서는 각 시, 군송배전소 책임일군들이 참가하는 긴급협의회가 소집되였다.

《이번 공사과정이 도내 송배전부문 로동계급의 마음속에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깊이 새겨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자는것입니다. 각 단위들에서 책임성과 기술기능이 높은 로동자들을 선발하여 내보냅시다.》

지배인 유경학동무의 낮으나 무게있는 목소리가 협의회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7월초 각 단위에서 선발된 수백명의 로동자들을 태운 수십대의 자동차행렬이 후치령을 넘어 백두전역에 도착하였다. 하루가 지나서부터는 벌써 도가 맡은 20km구간의 여기저기서 철탑들이 일떠서기 시작하였다. 불과 20일만에는 도가 맡은 전구간에서 철탑세우기가 빛나게 결속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항일의 투사들이 지녔던 백두의 넋,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더 깊이 새겨안자, 이런 사상적각오를 안고 분발한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가 없었다.

전선늘이기가 한창이던 지난 7월 하순이였다. 옥천지구를 타고앉아 속도를 높이던 1중대의 금야군송배전소 로동자들이 전진을 멈추었다. 새로 전선을 늘여야 할 구간을 가로지른 송전선로에서 이틀동안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송전선로로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전기가 간다는것을 아는 그들이였기에 힘들지만 어려운 길을 택하였다. 도송배전부 부기사장 박용동무의 지휘밑에 군송배전소의 량일룡, 김도웅동무들을 비롯한 기술자, 로동자들이 송전선로주변에 4개의 나무기둥을 박아나갔다. 그에 의지하여 송전선로우에 안전그물을 친 로동자들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새 송전선로의 전선늘이기작업을 계속해나갔다. 이틀간의 전투기간에 정전시간은 불과 15분뿐이였다. 48시간과 15분, 육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을 긴장하게 벌리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적창조로 들끓는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전기를 지장없이 보장하였다는 기쁨이 차넘치였다.

어찌 이때뿐이랴. 도가 맡은 구간의 전선늘이기작업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섰던 7월말에도 유정길, 신철민동무들을 비롯한 덕성군송배전소의 로동자들은 다른 도와의 경계선에 있는 철탑세우기를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공사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는데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는 각오밑에 그들은 험한 산발을 톺으며 중량물을 날라 단 하루만에 산정점에 철탑을 일떠세웠고 그 기세로 1800m에 달하는 마지막구간의 전선늘이기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당앞에 결의한 날자를 앞당겨 맡겨진 송전선공사를 끝낸 그들은 그길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은 어떻게 담보되는가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황해북도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천리마대고조의 높은 진군속도와 함께 천년책임, 만년보증과 같은 튼튼한 질적담보가 더 없이 귀중합니다.》

려단이 청춘다리건설을 맡은 첫 시기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속에서는 콩크리트다리건설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가 꼐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초급당일군인 정윤철동무는 려단과 대대의 정치부일군들부터가 결사관철의 각오를 안고 청년돌격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백배한 청년돌격대원들속에서 공사속도와 함께 질을 보장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들이 련이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다리건설에서 콩크리트혼합물의 배합비률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자각한 돌격대원들은 종전과는 달리 혼합함을 만들어 리용하기로 하였다. 세멘트와 골재를 정해진 비률로 함안에 넣고 혼합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려단은 이 혼합함을 리용하여 지난 7월 6일에는 우안, 8일에는 좌안의 상판치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불과 3시간만에 끝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다리의 란간공사를 할 때였다. 물방울과 물결모양, 갖가지 주름무늬까지 새겨져있는 란간을 완성하기란 결코 헐치 않았다. 일반미장칼을 가지고 여러가지의 무늬들을 만들자니 시간은 엄청나게 들고 질도 시원치 않았다. 려단장 김철룡동무와 청년돌격대원들은 자체로 10여가지의 여러 형태의 미장칼을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하나의 예술작품을 방불케 하는 물결이 형상된 란간과 홰불모양의 란간친주들을 훌륭히 완성해내고야말았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을 위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이 바친 애국충정의 마음을 한두마디의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다. 각자가 시공일군이 된 심정에서 시공추와 자를 만들어 리용한 1대대와 2대대의 돌격대원들, 마감미장에 쓸 함수석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며칠밤을 새운 3대대와 4대대의 돌격대원들…

1호언제주변의 풍치를 한껏 돋구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된 청춘다리는 애국충정으로 불타는 심장을 지닌 우리의 백두청춘들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도 있을수 없다는 철리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서두수의 푸른 물은 뜨겁게 굽이친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평안북도려단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이름떨치며 청춘의 용맹과 슬기를 힘있게 과시해나가고있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평안북도려단 돌격대원들, 2호물길굴피복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지난 1일부터 2호발전소하류의 다리건설을 단독으로 맡은 그들은 청춘의 심장으로 서두수의 격류를 뜨겁게 달구며 또 다시 기적창조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다.

결사의 낮과 밤을 이어 9일만에 다리기둥공사를 끝낸 청년돌격대원들은 불과 한주일만에 수십m에 달하는 다리보와 상판콩크리트치기를 결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것처럼 오늘의 력사적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호발전소하류다리공사는 처음부터 서두수의 푸른 물과의 격전이였다.

가물막이를 한 좌안지대를 먼저 타고앉은 려단돌격대원들앞에는 물면으로부터 근 2m깊이에서 수중타입을 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이 나섰다. 려단지휘관들은 기초바닥에서 1m높이로 돌을 먼저 축조하고 그우에 휘틀을 설치할 착상을 하였다. 실력있는 단위인 6대대앞에 이 전투명령이 떨어졌다.

목언저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진행되는 힘겨운 작업이였다. 하지만 참모장 최기환, 참모 최봉혁, 김현철, 김성철동무들을 비롯한 대대의 지휘관들이 남먼저 물속으로 뛰여들었다. 대원들도 저저마다 그들의 뒤를 따랐다. 자맥질을 하다싶이 물속으로 들어가 손더듬으로 하나둘 돌을 쌓아나갔다. 밤이 되여 기온이 내려가자 이가 떡떡 맞부딪치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지만 돌격대원들은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다지고 다져온 청춘의 용맹으로 더욱 기세를 올리며 불과 4시간만에 3개의 다리기둥기초에 대한 휘틀조립전투를 결속하고야말았다.

충천한 기세로 우안다리공사에 달라붙은 려단앞에 서두수의 거센 물결이 또다시 도전해나섰다. 보통때보다 곱절이나 불어난 강물은 좁아진 물목으로 사품쳐흐르며 가물막이뚝을 뭉텅뭉텅 끊어버렸다.

발전소건설초기부터 오랜 경험을 쌓아온 려단장 박원근동무가 나무방틀을 만들고 그안에 돌을 채워 최종가물막이를 결속할 방안을 내놓았다.

6대대의 결사대원들이 즉시 전투에 진입하였다. 대대장 김명성, 소대장들인 고정철, 리희정, 정학철동무들을 선두로 한 결사대원들은 나무방틀을 메고 사품치는 강물에 뛰여들었다. 쏴-쏴-무섭게 사품쳐흐르는 서두수의 물결에 큰돌들이 디굴디굴 굴러내렸다. 하지만 그 무엇도 청년돌격대원들의 억센 심장을 흔들어놓지는 못하였다. 제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 사품치는 강물속이였지만 청년돌격대원들은 혁명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육중한 나무방틀을 메고 한치한치 완강하게 전진하였다. 방틀이 제자리에 들어선 순간 려단장도 돌격대원들도 하나가 되여 돌을 채워넣었다. 마침내 서두수의 세찬 물결은 백두청춘들의 불보다 뜨거운 심장앞에 머리를 숙이고야말았다. …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는 길에서 청춘의 삶도 행복도 꽃피우려는 백두청춘들의 억센 기상을 보여주는가 오늘도 서두수의 푸른 물은 결사관철의 용암마냥 도도히 굽이쳐흐르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더러운 악설만을 내뱉는 박근혜를 한시바삐 공동묘지에 묻어버려야 한다

전국련합근로단체 대변인담화

해방의 드높은 환호성은 어느덧 70돐기의 년륜을 내 나라 삼천리강토에 새겨놓았다.

오늘도 진할줄 모르는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이 땅에 넘쳐나는 시각에 때아닌 악설이 터져나와 온 겨레로 하여금 경악을 넘어 격노케 하고있다.

민족의 재앙거리인 박근혜의 입부리에서 또다시 독기어린 악담이 쏟아져나왔던것이다.

사실 박근혜의 사유기능이 정상이라면 적어도 이날만은 제 집안에 들어박혀 죄악에 찬 가문의 친일행적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해보아야 했을것이다.

일제《황군》의 오까모도중위로 둔갑하여 우리 인민의 항일운동을 야만적으로 탄압한 악명높은 천하친일역적인 애비 박정희를 그대로 닮은 박근혜가 《한미일》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나토》식다자기구를 설립한다는 미명하에 아베의 품에 안기려고 각종 요사를 다 떨어대고 친동생인 박근령이 왜왕을 《천황》으로 섬겨올리고 《위안부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일본을 압박하는것은 심히 잘못된 처사》라고 망발하여 지탄받은것도 불과 며칠전의 일이다.

이러한 박근혜가 《8.15경축사》를 한다는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늘어놓은 수작 또한 하나에서 열까지 동족을 헐뜯는 극도의 대결적망발로 일관되였다.

언제 봐야 개주둥이에서 짖는 소리가 나올뿐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제정신없이 동족을 걸고드는데 대해 몇마디 언급해보는것이 필요할것 같다.

박근혜는 《경축사》서두에서부터 우리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따라야 한다고 역설해댔다.

우리더러 변하라고 줴쳐댄것은 동족에 대한 초보적인 관별력도 없는 무지스러운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 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따라 곧바로 최후승리의 지평을 향해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변해야 할것은 미국이 하품만 해도 싫든좋든 잠자는 흉내를 내야 하는 굴종과 추종의 식민지 남조선이며 동족대결이 골수에 찬 박근혜이다.

결국 박근혜의 《변화》타령은 온 민족을 자기와 같은 민족반역의 무리로, 남조선과 같은 식민지로 만들자는 얼빠진 넋두리에 불과하다.

민족의 구성원에서 박근혜와 같은 사대매국노들을 씨종자까지 없애버리는것이 곧 겨레가 바라는 변화이고 기대일것이다.

박근혜는 그 무슨 《숙청》에 대해 지껄여대기도 하였다.

과연 숙청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악의에 찬 수작을 줴쳐댔는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숙청이란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강제해산시킨 통합진보당사건이고 의로운 애국력량들을 친북, 종북으로 몰아 철창으로 몰아가는 《현대판마녀사냥》이며 더러운 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야수적폭압과 탄압에 의거해야 하는 괴뢰들에게 적중한 말이다.

폭압으로 유지되고 야수적탄압으로 견제하는 괴뢰들에게는 숙청이 《정권》유지의 필수적수단이다.

그렇다고 하여 인민을 위한 모든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을 《숙청》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박근혜의 골통이 얼마나 삐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산증거로만 될뿐이다.

박근혜는 우리가 그 무슨 《대화제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간 통합에 역행》한다고 떠들어댔다.

북남대화를 론하고싶다면 먼저 박근혜가 취한 모든 행태부터 따져보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호상 협의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왔다.

진정과 성의가 깃든 이 노력에 대해서는 대결에 열뜬 악질분자들도 감히 부정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일당은 동족대결각본인 《5.24대북조치》를 끌어안고 서울 한복판에 반공화국모략의 소굴인 《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나중에는 그 무슨 《독자적인 경제제재》까지 발령하는것으로 북남관계를 완전한 동결국면에로 몰아갔다.

대화를 제의한 취지가 진정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분위기조성에 달라붙어야 했을것이다.

새해벽두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 박근혜와 그 패당이 저지른 행위는 철두철미 대화재개에 전면역행하는 대결책동이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각층은 이구동성으로 《입만 벌리면 대화제안, 뒤에서는 대북자극행위, 어느것이 이남당국의 본모습이고 본얼굴인가.》, 《진정성없는 대화라렬이 추구하는 진의의 끝은 민심기만과 치적쌓기》라고 쓴소리를 내뱉고있다.

이번에 박근혜는 우리의 신성한 핵문제를 또다시 더러운 혀바닥에 올려놓았다.

입만 벌리면 동족의 핵문제를 떠드는 박근혜의 꼬락서니는 마치 망녕든 로파의 익숙된 짓거리를 련상케 한다.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게도 우리의 핵억제력을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수호의 보검으로 공인하고있다.

이 보편적인 진리를 유독 박근혜만이 애써 부정하고있는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핵을 거론하고싶다면 세계유일의 핵전범국이고 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핵위협과 공갈로 세계를 제패해보려고 발광하는 미국을 단죄하고 규탄해야 할것이다.

특히는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울수 있는 미국의 핵전략타격수단들인 《B-2A》, 《F-22A랩터》전투기와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몰래 끌어들이지 말고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

상전인 미국에게는 입 한번 벙긋도 못하는 주제에 민족공동의 보검인 동족의 핵을 악의에 차 헐뜯는 박근혜여서 천하에 둘도 없는 미국산앵무새라고 락인한것이다.

박근혜는 모략과 날조로 일관된 상투적인 《북소행》설도 잊지 않고 주절거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이버공격》으로 그 무슨 《안보를 위협》하고있다고 꺼리낌없이 뇌까려댄것이다.

《3.20해킹공격사건》, 《GPS전파교란사건》, 《〈농협〉금융콤퓨터마비사건》, 《7.7전산대란》, 《언론매체인터네트마비사건》, 《서울대학병원전산망해킹사건》, 《초유의 원전대란사건》 등과 같은 형형색색의 《북소행》설이 서푼짜리 모략극으로 판명된지 오래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말건 제 혼자 성수가 나서 아직까지 꿰진 북통을 두드리고있는 박근혜를 누가 온전하다고 볼수 있겠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의 악담질에 스스로 열기가 뻗친 박근혜는 《도발과 위협》이라는 낱말을 련발해대며 그 누구더러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뿐이라고 청을 돋구기도 하였다.

도발이 무엇인지, 위협이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는 천하바보가 박근혜이다.

조선반도에서 벌어지고있는 실제적인 도발과 위협은 미국의 적대적인 군사전략에 추종하여 괴뢰들이 감행하고있는 모든 정치군사적준동들이다.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지뢰폭발》사건을 《북도발》로 매도하면서 재개한 《대북심리전》방송이 진짜도발이며 괴뢰군부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감행하는 반공화국삐라살포가 악랄한 심리전도발이다.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섬지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리는 총포사격과 같은 광란적인 선불질이 동족에 대한 진짜위협이며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목에 피대를 세우고 덮뜯어대고있는것이 도발중에 가장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어도 도발이 무엇이고 위협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나 제대로 공부하고 이 땅에서 도발과 위협을 저지르는 주범이 다름아닌 자기자신이라는것을 자인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우리에 대한 도발과 위협행위가 괴뢰당국을 사면초가의 위기속에 고립시키고 파멸에로 몰아간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혀바닥이 돌아가는대로 횡설수설해대던 박근혜는 지어 7.4공동성명에 대하여 운운해대며 《지금도 기회가 주어져있다.》는 너스레를 떨기도 하였다.

7.4공동성명은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담은것으로 하여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마음과 뜻을 합쳐 조국통일의 숙원을 이루자는 겨레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감히 7.4공동성명을 운운한 박근혜에게 묻는다.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풀어나가는것을 요구하는 자주의 원칙에 공감하는가.

전쟁의 참화로부터 겨레의 생존터전을 지키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담보하는 애국애족의 정신이 슴배인 평화통일의 원칙을 시인하는가.

갈라지면 망하고 하나로 합치면 강해지는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북남관계개선의 원동력인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온 겨레의 엄숙한 질문앞에 자기를 세워놓으면 지금까지 이 모든것에 역행하며 광기를 부려온데 대해 요사스러운 낯판이 시뻘건 벽돌처럼 굳어져버릴것이다.

보다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박근혜가 마치도 《리산가족》문제해결에 대하여 관심이나 있는듯이 간교한 요설을 늘어놓은것이다.

박근혜는 마치 자기에게도 인간적인 면이나 있는듯이 인도주의적문제를 자주 입에 올리군 한다.

올해만 소급해보아도 년초부터 《리산가족》문제해결이 《민족적책무》이고 《최우선과제》라고 떠들어댔으며 이번에도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리념이 대립된다 하여도 인도주의적견지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껄여댔다.

박근혜는 그따위 요설을 그만 내뱉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래 북과 남의 인적, 물적래왕을 동결시킨 극악무도한 《5.24대북조치》를 끝끝내 견지하고있는것도, 《리산가족》문제가 미제에 의해 강요된 침략전쟁으로 발생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문구자체가 불행과 공포의 대명사로 된다는것을 몰라서 미제와 야합하여 각종 형태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벤질나게 벌려대고있는것인가 하는것이다.

《리산가족》문제에 그리도 관심이 높아서 기관고장으로 표류된 우리 선원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쇠장대로 후려치는 야만적인 깡패행위로 《귀순공작》을 들이대고 교언, 기업가들로 가장한 형형색색의 《국정원》나부랭이들을 내세워 새로운 《리산가족》들을 인위적으로 산생시키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재카나다목사 림현수의 진술에 파연 귀를 틀어막고있었단 말인가.

박근혜가 《리산가족》문제를 입에 올리려면 적어도 잘못된 꼬임에 속아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악취풍기는 자본주의사회에 침을 뱉고 우리 공화국의 품에 다시 돌아오고싶어하는 사람들의 피타는 소망부터 풀어주어야 할것이다.

이미 거덜이 난 《리산가족》문제해결이라는 경망스러운 말장난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것은 독선적이고 파렴치한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는데 그 흉심이 있을뿐이다.

박근혜는 이번에 비무장지대에 《세계생태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협력실현의 새로운 축》을 만들겠다는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능력도 마비된 황당하기 그지없는 론리가 아닐수 없다.

오늘 군사분계선일대는 박근혜패당이 추구하는 동족대결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비무장지대에서 몇발의 지뢰가 폭발된 사건을 《북도발》로 몰아대면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정상적인 순찰중에 있는 우리 군대에게 자극적인 폭언을 내지르다 못해 총까지 란사해대는 곳이 바로 군사분계선지역이다.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삐라살포를 《풍선작전》으로 명명하고 우리에 대한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돌입한 곳도 바로 군사분계선지역이다.

최악의 대결상황이 지속되고 언제 전쟁의 불찌가 튕길지 모를 세계최대의 첨예한 열점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것이 파연 제정신이 있는 소리인가 하는것이다.

박근혜는 이외에도 별의별 귀맛좋은 소리를 다 늘어놓았다.

다시금 언명하건대 누구의 삶을 걱정하거나 론하기 전에 남조선의 험악한 실태부터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대학문전을 나오면 곧 실업자가 되고 미국의 미친소고기와 농산물수입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외세의 경제적압박에 눌리워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도산되고 치료비와 학비때문에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의 현 실상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아무리 현란하게 치장한다 해도 사대와 매국, 대결과 적대로 얼룩진 죄많은 몰뚱이에서 풍기는 구린내를 가시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박근혜가 민족을 위해 할것이 있다면 미국의 개우리인 청와대를 떠나 불꽃사나운 입부리를 다물고 죄많은 육신을 한시바삐 공동묘지에 묻어버리는것뿐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9일
평 양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진행

청년절에 즈음하여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12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휴대용미압측정기》, 《순천화학련합기업소 고강력비날론지능조종체계》 등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청년과학기술행군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750여건의 정보기술제품들을 비롯하여 3 74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새 기술혁신안들이 출품되였다.

전시회기간 참가자들은 서로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소개하고 이를 생산에 받아들이는 과정에 쌓은 경험들을 교환하였다.

페막식이 19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단위의 청년과학자, 기술자들, 교원, 연구사, 로동자, 3대혁명소조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성호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청년들을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 패권자가 되도록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최첨단돌파로 최후승리의 지름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과학기술로 승리하고 번영하는 영광넘친 시대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백두산대국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페막식에서는 종합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국가과학원,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평양시와 함경남도를 비롯하여 이번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참가자들에게 표창장과 발명증서, 창의고안증서 등이 수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이어진 열여덟해

월미도축구단 단장 윤용남동무와 일군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 사람들속에는 모란봉구역 인흥2동에서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 조금철동무를 18년동안 진심으로 돌봐주고있는 월미도축구단 단장 윤용남동무와 일군들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예군인들은 조국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운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월미도축구단 일군들이 특류영예군인 조금철동무를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8년전이였다.

당시 녀자축구감독이였던 윤용남동무는 녀자축구선수인 리명옥동무가 조금철동무와 한가정을 이룰 결심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았다.

한두해도 아니고 전신마비로 침상에 누워있는 특류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한다는것은 결코 쉽게 내릴 결심이 아니였던것이다. 그럴수록 자기보다 먼저 동지의 아픔을 생각할줄 알고 동지를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려는 리명옥동무가 기특하고 돋보였다.

어느날 집에 들어선 윤용남동무는 안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도 명옥이를 잘 알지. 여느때에는 말이 없던 그가 원정경기에 나갔을 때 앓는 동무에게 약을 탈여주느라 밤을 꼬박 새우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구만. 그런 그가 특류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 쉽지 않은 결심을 내렸소. 영예군인을 돌봐주는것이 어찌 명옥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소. 우리도 그 영예군인의 친형, 친누이가 되여줍시다.》

그러자 안해는 웃으며 《그게 바로 명옥이를 돕는 일이지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되여 윤용남동무와 그의 가정은 조금철동무와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되였다.

명절날과 휴식일은 물론 별식이 생겨도, 원정경기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때없이 찾아오고 생일날도 잊지 않고 찾아와 성의껏 마련한 보약도 안겨주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윤용남동무와 그의 가족을 대할 때마다 조금철동무는 고마움에 젖군 하였다.

윤용남동무의 이런 아름다운 소행은 점차 월미도축구단 일군들속에 알려지게 되였다.

사연을 알게 된 그들은 《이게 어찌 용남동무 혼자의 일이겠소.》라고 하면서 저저마다 영예군인을 도와나섰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월미도축구단의 일군들은 18년동안 사랑과 헌신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오고있다.

이들의 뜨거운 사랑과 정에 의하여 조금철동무는 오늘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활하고있으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있다.

리 신 향

태양빛전지로 운행하는 새 려객선을 무었다

남포해운사업소에서

시험항행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동강으로 오고가는 려객선, 유람선들을 축전지로 가동시킬수 있는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사업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모든 종업원들이 최첨단돌파전에 과감하게 뛰여들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렸다. 특히 모든 종업원들이 자연에네르기를 최대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낮을 돌리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사업소에서는 태양빛에네르기를 리용하는 새 려객선을 못자는 기술자들의 창발적의견을 적극 지지해주고 기술력량과 기능공들을 집중하여 려객선건조가 빠른 기간에 결속되도록 힘껏 떠밀어주었다.

남포시당위원회와 륙해운성의 일군들이 려객선건조를 적극 밀어주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려객선에 미흡한 점들이 없는가를 따져보며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무은 태양빛에네르기를 동력으로 하는 새 려객선은 곧 남포—길성포배길을 따라 운행하게 된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주 창 선

슬로베니아 라이바흐악단

평양에서 공연

슬로베니아 라이바흐악단의 공연이 19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있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유럽지역친선 및 문화교류대표단,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유럽문화교류촉진협회와 노르웨이 트라비크예술회사, 슬로베니아 라이바흐악단의 공동명의로 준비된 공연무대에는 《휘파람부는 사람들》, 《음악의 소리》, 《산으로 가자》, 《에들바이스》, 《전세계에서》, 《생》, 《도레미》 등 세계명곡들과 반전평화주제의 곡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개성적인 창법과 풍만한 성량, 높은 연주기교로 곡상의 요구를 살려 악단의 예술적기량을 잘 보여주었다.

그들은 조선노래 《아리랑》도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대표단들이 떠나갔다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였던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대표단과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회장이 19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과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이에 앞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조국통일범민족련합공동사무국대표단,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대표단,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로일군대표단이 갔다.

【조선중앙통신】

외국손님들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에 참가하였던 피터 윌슨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서기일행과 피터 우즈를 단장으로 하는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대표단 성원들이 19일 평원군 조선뉴질랜드친선삼봉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현지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연혁소개실을 참관하였다.

이어 손님들은 알곡증산의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열의드높이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을 도와 남새밭김매기를 하였다.

손님들은 이곳 농장이 앞으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온 세상에 자랑하고싶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생활의 전부라고도 합니다.

특류영예군인인 저도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되는것이 소원이였고 아장아장 뛰여노는 자식의 행복스런 모습을 보며 어리광도 받아주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런 행복이 쉽게 차례지지 않았습니다.

두해전 평양산원에서 그렇게도 바라던 저의 아들이 태여났으나 너무도 허약하여 자식을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의 안해는 아이를 낳기에는 힘든 나이였습니다.

그때 7산과 과장 변영학선생님과 리혜영선생님을 비롯한 의사선생님들은 협의회를 수차례 열고 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치료전투를 벌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피도 수혈해주었고 명절날과 휴식날은 물론 퇴원하는 날까지 정성껏 돌봐주어 수십일만에 아들의 몸무게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저의 아들을 위해 바쳐진 평양산원 의사, 간호원들의 수고와 정성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안해와 아들이 완쾌되여 퇴원하기 바쁘게 동사무소일군들과 인민반사람들이 갖가지 애기옷들과 애기포단, 영양보충에 필요한 식료품들을 들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의 안해는 뜨거운 진정을 기울여주는 그들이 꼭 친정어머니, 친언니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떨쳐나서 생의 활력을 더해주고 따뜻한 정을 안겨주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습니다.

만경대구역 당상1동
46인민반 지 철 민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낱낱이 발가놓는 력사의 고발장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 신천박물관을 찾아서(1)

원쑤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

땅도 그 땅, 하늘도 그 하늘이였다. 사백어머니와 백둘어린이의 묘도 원암리 밤나무골의 그 자리에 오늘도 옛 모습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곳은 소년단넥타이를 휘날리던 시절부터 눈에 익혀온 어제날의 그 신천이 아니였다. 나무와 풀, 공기와 물마저도 달라진 땅이였다.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의 사상적보루로 새롭게 일떠선 신천박물관, 그와 더불어 신천은 그자체가 증오이고 분노였으며 원쑤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의 거대한 응어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신천군이 제일 참혹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한계단, 두계단…

언덕은 나지막하고 계단은 높지 않았으나 우리는 쉽게 오를수 없었다. 숙연해지는 마음으로 계단을 톺아 사백어머니묘, 백둘어린이묘, 애국자묘에 추모의 꽃송이를 얹고나니 새로 일떠선 신천박물관의 자태가 우렷이 안겨왔다.

력사의 고발자, 증견자인 신천박물관은 피젖은 죄사슬을 얼기설기 휘감고 신천땅 어디서나 보이는 언덕에 거연히 솟아있었다.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박물관현관을 지나 중앙홀에 들어섰다. 홀의 정면벽에는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라는 글발과 함께 그날의 참변을 말해주듯 피빛을 배경으로 분노와 슬픔에 몸부림치는 녀인들과 아이들의 부각상이 형상되여있었다.

이어 총서관에서 우리는 강사로부터 신천박물관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박물관의 연혁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전시실—1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사는 박물관의 첫 전시실에서 참관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전시실에는 이미 백수십년전부터 신천과 재령지역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쳐온 미국놈들과 그 주구인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여있습니다.》

해방전 선교사의 탈을 쓴 미국놈들은 교통의 중심지, 삼각지대라고 말할수 있는 신천과 재령지역에 물밀듯이 쓸어들었다.

놈들은 신천땅 곳곳에 학교와 병원, 례배당을 차려놓고 사람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미국에 대한 환상과 굴종사상을 불어넣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또한 앞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길잡이로 써먹을수 있는자들을 긁어모아 그놈들에게 철저한 반공사상, 숭미사상을 주입시켰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된 사진자료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던 참관자들은 어느 한 전시물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윌리암 헌트를 비롯한 미국선교사놈들에 의해 길들여진 김익두놈과 계급적원쑤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서부교회당 지하실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폭동음모를 꾸민데 대한 그림과 사진자료였다.

참관자들은 지하실의 어두컴컴한 구석에 들어박혀 폭동음모를 꾸미고있는 계급적원쑤들의 음흉한 몰골을 통하여 하나의 사실을 똑똑히 깨달을수 있었다.

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다른 곳도 아닌 신천땅에서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군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명씩이나 학살되는 치떨리는 참변이 일어나게 되였는가를.

그것은 신천지역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 노예화하려고 미쳐날뛴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해 반공과 숭미사상이 그 어느 지역보다 더 깊이, 더 폭넓게 전파된 곳이기때문이였다.

미국에 대한 뿌리깊은 환상과 굴종의식때문에 신천에서는 김익두놈을 비롯한 착취분자들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달을 부리며 불평불만을 일삼던 허필순놈과 같은 불량배들에 의해 짐승도 낯을 붉힐 끔찍한 참사가 빚어졌던것이다.

참관자들은 미제에 대한 환상과 굴종이 어떤 후과를 낳게 되는가를 전시실—2를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할수 있었다.

《여기서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당시 신천군당방공호와 그 주변에서 감행한 야수적인 학살만행에 대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강사의 해설에 의하면 군당방공호에서 감행된 학살만행은 신천땅에서 감행된 첫 대학살만행이였다고 한다.

강점 첫날부터 신천군안의 수많은 인민들을 체포하여 군당위원회청사에 감금하고 야수적인 고문을 해대던 놈들은 1950년 10월 18일 그들의 옷을 벗겨 머리에 씌운 다음 5~6명씩 결박하여 방공호에 몰아넣고 불태워죽이였다.

미제살인귀들은 불과 40여㎡밖에 안되는 좁은 방공호에서 불에 탄 인민들의 시체우에 또다시 사람들을 몰아넣고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무려 9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을 악착하게 학살하였다.

전시실에 펼쳐진 대형반경화는 그날의 참상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었다.

불타는 방공호와 그속에서 몸부림치는 무고한 인민들, 너덜웃음까지 터뜨리며 사람잡이에 미쳐날뛰는 미제승냥이놈들…

더우기 방공호앞에서 인간도살만행을 지휘하고있는 미군장교놈과 그옆에 선 치안대놈을 형상한 랍상은 그놈들이 금시라도 눈앞에 살아있는듯 하여 보는 사람마다 저도모르게 두주먹을 불끈 틀어쥐게 하였다.

학살현장에는 피젖은 책가방이며 필갑이 뒹굴고있었다.

그것을 보느라니 해방된 조국땅에서 마음껏 터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었고 억울하게 스러져간 그 수많은 생명들앞에서 우리 세대가 뼈저리게 자각해야 할 교훈과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안을수 있었다.

신천의 참변, 그것은 《박애》와 《자선》, 《문명》과 《자유》를 부르짖는 미제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진상이였다.

오늘 미제는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류포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참관자들은 원쑤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또다시 신천의 참상, 신천의 교훈이 되풀이될수 있다는것을 심장에 아로새기며 다음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글 본사기자 리남호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수필 아들애의 숙제장을 앞에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새롭게 건설된 신천박물관에 대한 참관사업이 있은 며칠전 저녁이였다.

집에 들어서니 국어교과서를 펴놓고 공부를 하던 소학교 2학년생인 아들애가 숙제장을 내보이면서 《아버지, 자, 여기 수표!》하고는 나의 손에 연필을 쥐여주는것이였다.

날마다 화목한 가정의 즐거움속에 아들애의 숙제검열을 하고 《아버지 보았습니다.》라고 수표를 해주는것은 어느 사이엔가 굳어진 나의 하루마지막일과였다.

그때마다 대견한 마음으로 아들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도 해주군 하였던것이다.

허나 왜서인지 연필을 받아쥐고도 선뜻 수표를 할수 없었다.

눈앞에 신천박물관을 참관하면서 보았던 류다른 전시물들이 다시금 안겨들었던것이다.

바람부는 언덕에 나딩구는 멜끈달린 책가방과 열려진채 내버려진 필갑이며 흩어진 연필 몇자루…

하늘땅에 사무친 그날의 원한을 불러오는 광경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던 나였다.

아마 그 책가방의 임자는 내 아들애와 동갑나이였을수도 있으리.

아침이면 논밭으로 일나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곱게 머리숙여 인사드리고 책가방을 달랑이며 학교로 달려가고 저녁이면 밤깊도록 교과서를 펴놓고 또박또박 글씨쓰기숙제도 하였을 이름모를 신천의 소년…

이렇게 우리 글을 익혀가는 그 소년의 가슴속에는 새 나라의 역군이 될 소중한 희망의 새싹이 움터났으리라.

새끼를 꼬고 바느질을 하며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순박한 농민부부의 마음은 또 얼마나 흐뭇했으랴.

해방전 천덕꾸러기였던 자기들에게 땅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찾아주시고 아들애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김일성**장군님의 고마운 그 은덕에 보답하자고 순결한 땀과 지성을 다 바친 모범농민인것으로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매장당하고 그 아들은 《빨갱이종자》라는 리유로 미국놈들의 총탄에 가슴이 찢기고…

아직은 너무도 애어린 꽃망울파도 같은 철부지소년들마저 무자비하게 살륙한 미국놈들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이고 식인종의 무리였으니 나는 진정 끓어번지는 분노로 치떨리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만일 그리도 소중히 여기던 책가방과 함께 어린 꿈 아니 생명마저 미국놈들에게 빼앗겼던 저 소년이 다시 살아일어나 학습장에 글을 쓰게 된다면 과연 제일먼저 무엇을 쓸것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미제승냥이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해주세요!》라는 피의 절규일것이다.

어찌 이것이 그 애어린 소년의 원한에 찬 부탁만이랴.

그것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메아리쳐오는 신천의 당부, 력사의 준엄한 웨침이려니 나는 숙제장을 펴놓고 기다리는 아들애를 생각깊이 바라보았다.

저 티없이 맑은 눈동자에 다시는 미국놈들의 피비린 살륙의 검은 포화가 비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커서 이름난 미술가가 되겠다는 아들애의 고운 꿈이 미국놈들의 군화밑에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목숨바쳐 받들리라.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도 이 땅에서 미국놈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고 천백배로 복수할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키워가리라.

나는 아들애의 숙제장과 손에 쥐고있던 연필을 잠시 한쪽에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아들애에게 신천땅의 곳곳에서 감행한 철천지원쑤 미제의 야수적살인만행들에 대하여 밤깊도록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신천땅의 피의 50여일을 아들애가 한생토록 잊지 않도록 들려주는것을 어길수 없는 하루의 마지막일과로 지켜가리라 결심하였다.

신천의 피의 교훈을 계급투쟁의 교과서의 구절구절로 뼈에 새기고 살 때만이 새 세대가 자기의 어깨에 지워진 계급의 의무를 다해갈수 있기에.

박영진

단상묶음 신천의 령혼들은 피의 복수를 부른다

분노의 초침

오늘도 승냥이 미제의 살인귀적만행을 소리쳐 전하는듯 한 피살자들의 유물들을 돌아보던 나는 전시된 회중시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비록 멎어있었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금시라도 초침소리가 들리는듯싶은 그 회중시계가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시계는 말그대로 시간을 알리는 기구이다.

예로부터 인간생활은 시간과 함께 흘러왔다. 세기를 이어가며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탐구속에 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시계들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시계라도 시간을 알리지 못하고 멎으면 의의가 없는것이다.

아마도 박물관의 이 회중시계의 초침도 사형장에서 쓰러진 시계임자의 심장과 함께 멎었을것이다.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

바로 그래서이리라. 그 회중시계가 나의 눈앞을 떠나지 않는것은.

비록 초침은 멎었어도 멎은 그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회중시계는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온 세상에 소리쳐 전하고있지 않는가.

미제는 피에 주린 야수, 인두겁을 쓴 승냥이라고.

그렇다.

이 땅우에 미제가 남아있는 한 신천의 시간, 복수의 시간은 쉬임없이 흐를것이며 그 회중시계는 세세년년 분노의 초침을 돌릴것이다.

본사기자 윤주현

대 못

새로 일떠선 신천박물관에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할 때 사용한 수많은 흉기들이 전시되여있다.

단도, 몽둥이 그리고 낫과 곡괭이…

원쑤들은 인간살륙에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흉기가운데서 류달리 나의 눈앞에 또렷이 안겨드는것이 있다.

사람의 머리뼈에 박힌 대못이다.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랜 세월속에 비록 녹이 쓸었지만 얼핏 보기에도 한뼘은 실히 될듯싶은 신천의 대못,

모름지기 그것은 땅이 꺼지도록 풍작을 마련한 기쁨속에 어느 한 농민이 덩실한 새 기와집을 지으려고 마련했던 대못은 아닌지.

하지만 대못은 새 기와집의 기둥이 아닌 사람의 머리뼈에 박혀져 여기 신천박물관에 피젖은 유물로 놓여있다.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을 빼앗으려 전쟁의 불을 지르고 수천수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제승냥이놈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온 세상에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가 되여.

신천의 대못,

결코 무심히 볼수 없다. 그것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가 남아있는 한 이 땅에는 행복의 기둥을 세우기전에 신념의 기둥, 계급적자각의 억센 기둥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있다.

하기에 우리는 신천의 대못앞에서 이렇게 웨친다.

어제날 미제야수들은 그 대못을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꺼리낌없이 박을수 있었지만 오늘은 신천의 교훈을 뼈에 새긴 천만군민의 멸적의 의지에 의해 원쑤 미제의 머리우에 내려꽂힐 복수의 총창으로 되리라.

본사기자 엄명석

백발소년

신천박물관의 입구에 있는 사백어머니묘와 백둘어린이묘.

그 원한의 밤나무골 화약창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3명의 어린이들중 한사람인 주상원은 오늘도 그날의 참상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주고있다. 잊어서는 안되며 또 잊을수도 없는 그날의 원혼들의 피의 절규를.

머리에 비록 흰서리를 얹었어도 마음은 60여년전의 그날에 살며 후대들에게 계급적자각을 심어주는 그다.

그를 보느라니 지난해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의 구절이 생각났다.

나는 신천의 103번째 어린이라고 했던 그의 말이.

그렇다. 몸은 비록 늙었어도 마음은 60여년전 그날의 어린적마음그대로인 그는 신천의 백발소년이다.

그날의 어머니, 형님, 동생들의 원한을 풀기 전에는 늙을래야 늙을수 없어 언제나 그날의 소년으로 살며 복수를 부르고있다.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미제가 남아있는 한 그는 언제나 신천의 백발소년으로 살며 이 땅의 원혼들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당부할것이다.

살인악마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게 빼앗긴 이 땅의 수천수만어린이들의 생을 복수자의 삶으로 이어 살라고.

본사기자 오충국

잊지 말자, 살인귀들의 만행을!

피로써, 총대로 반드시 결산하리라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제의 만고대죄를 준렬히 폭로단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

올해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을미사변을 도발한때로부터 120년이 되는 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본지배층의 야만적행위는 곧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것으로 되며 전통적인 왕가의 존엄을 침해한것으로 되는것이다.》

19세기말 조선을 식민지로 예속시키기 위한 침략책동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야망이 뜻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그 주되는 원인이 당시 조선봉건정부의 국권을 한손에 거머쥐고있던 명성황후의 친로배일정책에 있다고 간주하고 그에 대한 강도적인 살해음모를 꾸미였다.

1895년 10월 일본반동정부는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 미우라를 돌격대로 내세워 일본군수비대무력과 경찰무력 지어는 깡패들과 불량배들로 살인집단을 뭇고 그들을 내몰아 한밤중에 조선황궁인 경복궁을 강도적으로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미우라를 우두머리로 한 살인집단은 황궁안의 침실에서 자고있던 명성황후를 일본도로 란도질하여 무참히 살해하고는 저들의 범죄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그 시체를 불태우고 남은 유골을 경복궁안의 못속에 내던지는 천인공노할 만고대죄를 저질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명성황후살해사건(을미년에 일제에 의하여 명성황후가 살해된 사건이라고 하여 을미사변이라고 함)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를 실현하려는 흉계밑에 꾸며진 특대형의 범죄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후예들인 일본반동들은 을미사변이 도발된지 12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를 진심으로 성근하게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은페하기 위해 갖은 잔꾀를 다 쓰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지난 시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을미사변의 도발로 저지른 만고대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범죄행위를 온 세상에 낱낱이 발가놓고 준렬히 단죄규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특대형범죄행위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명성황후를 야수적으로 잔인하게 학살한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 특대형의 범죄행위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을미사변도발당시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렬강들의 날로 강화되는 침략책동과 봉건지배층의 부패무능한 통치로 하여 비록 쇠퇴몰락의 길을 걷고있었지만 여전히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자신이 조선을 《독립자주의 나라》로 인정하고있었던 사실 하나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물론 이것이 장차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저들의 독점적지배를 실현하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기는 하였지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청일전쟁직전인 1894년 7월 17일 《조선을 독립국으로 공인》하며 《일본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원히 혹은 장기간 그 독립을 보호유지》시키도록 한다는것을 정부정책으로 결정하였던것이다. (《건건록》 이와나미서점 1967년 136페지)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속심은 어떠했든지간에 1895년 4월 17일에 체결한 시모노세끼조약(청일강화조약)에서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의 나라임을 확인한다.》는것을 첫 조항으로 쪼아박았던것이다.

이처럼 저들자신이 《독립국》으로, 《완전무결한 독립자주의 나라》로 공인하고 확인하였던 조선의 황궁에 총검으로 무장한 살인집단을 침입시켜 한 나라의 황후를 야수적으로 살해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서 특대형의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명성황후로 말하면 당시 조선의 국권을 한손아귀에 거머쥐고 고종을 대변하여 국정을 다스리고있던 국가권력의 대표자였다.

이러한 자주독립국가의 황궁을 날강도적으로 습격하고 국가권력의 대표자를 잔인하게 살해한것은 명실공히 우리 나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우리 인민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린으로서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행위로 되는것이다.

만일 조선봉건정부에서 무장집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황궁》을 습격하고 《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켰다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그때는 물론 오늘까지도 그것을 범죄시하며 책임을 따지고들것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을미사변의 도발은 당시는 물론 오늘의 국제법에 비추어볼 때에도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특대형의 범죄행위로 된다.

유엔헌장과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가들간의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을 비롯한 국제법문건들에서는 국가자주권의 존중원칙을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제하고있으며 여기에서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것은 국가들사이의 정치적독립을 존중하는것과 함께 주권국가의 합법적지위와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이처럼 국가들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제된 국가자주권의 존중원칙에 비추어볼 때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을미사변의 도발로 저지른 범죄행위는 그 어느 조항에나 다 저촉되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렇듯 국제법의 기본원칙과는 심히 어긋나게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유린하는 을미사변을 도발한 흉악한 목적은 우리 나라에 대한 독점적식민지예속화를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이미 《명치유신》이후부터 조선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선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는 청일전쟁을 계기로 저들의 주되는 경쟁자였던 청나라세력이 제거된 반면에 짜리로씨야의 남하정책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였다.

청일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중국의 료동반도를 강탈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책동을 적극 벌리게 되자 이것이 태평양에로의 진출을 기도한 저들의 남하정책에 큰 저해로 될것이라는 위구를 느낀 짜리로씨야는 당시 중국에 대한 세력권확장에 열을 올리고있던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추동하여 일본이 료동반도강점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3국간섭에 나섰다.

짜리로씨야는 일본정부에 보낸 항의각서에서 《료동반도를 일본이 강점하는것은 청나라의 수도를 위태롭게 할뿐아니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경고하면서 일본이 료동반도강점을 포기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외교문서》 제28권 2책 일본국제련합회 1953년 17~18페지)

짜리로씨야가 3국간섭의 앞장에 선데는 일본의 료동반도강점과 조선에 대한 지배권확립이 저들의 남하정책에 주되는 장애로 된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당시 짜리로씨야는 태평양에로의 진출을 기도하면서 남만주철도부설과 함께 조선에서의 부동항(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획득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로씨야황제 니꼴라이2세가 청일강화조약체결직전인 1895년 3월 자국외무상에게 《로씨야는 부동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항구는 조선의 동남부지방에 위치하여야 하며 우리 령토와 련결되여야 한다.》고 강조한것은 로씨야에 있어서 조선에서의 부동항의 획득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였는가를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단대사》 조선봉건왕조사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9(2010)년 172페지)

청일강화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료동반도를 강점하게 되자 짜리로씨야는 프랑스, 도이췰란드와 함께 3국간섭을 하여 1895년 5월 5일 끝내 일본으로 하여금 료동반도강점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복통이 터질노릇이였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한것은 짜리로씨야의 간섭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책동을 제 마음대로 벌릴수 없게 된것이였다.

게다가 명성황후의 친로배일정책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아통을 더욱 터뜨리게 하였다.

1895년 1월 7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강요로 황제와 황후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홍범14조》의 발표를 계기로 명성황후의 배일감정은 더욱 강화되였다.

명성황후의 배일감정의 강화는 결국 그로 하여금 당시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던 짜리로씨야와 접근하는 길로 나가게 하였다.

명성황후는 각국 공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외교관들의 회합장소였던 정동구락부에 척신들을 보내여 외국공사들과 친교관계를 두터이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기화로 하여 주조 로씨야공사 웨베르 역시 로씨야의 영향력을 조선황실에 부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성황후에게 접근하였다.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 이노우에가 일본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명성황후를 비롯한 친로파가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왕실의 권세를 강화하기 위하여…일본당(친일파—인용자)을 제압》하고 《일본인을 타인시》하면서 로씨야공사관에 빈번히 출입하고있다고 비명을 지른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황실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침투와 친로파들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안을 느끼고있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일본외교문서》 제28권 1책 일본국제련합회 1953년 420~422페지)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해 조선봉건정부의 황실안에서 친로파세력을 약화시키고 친일파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일본정부가 1895년 여름 이노우에를 도꾜에 불러들여 짜리로씨야의 조선침투를 막기 위한 흉계를 꾸미는 한편 이해 6월 조선주재 일본대리공사 스기무라로 하여금 조선봉건정부에 기여든 일본 《고문》들의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친로파의 활동을 견제하고 친일세력을 튼튼히 장악하며 친로파와 웨베르사이의 련계를 방해하도록 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갖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친로파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여갔으며 그 결과 조선에 짜리로씨야세력이 더욱 대대적으로 뻗치게 되였다.

짜리로씨야공사관 성원들은 조선황궁에 빈번히 드나들면서 반일선동을 벌리며 정치경제적리권들을 탈취하는 방법으로 조선에서 침략적지반을 다져나갔다.

결국 청일전쟁이후 적극 추진시켜오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책동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였으며 이로부터 그 어떤 결정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대책으로서 꾸며진것이 다름아닌 명성황후에 대한 살해사건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당시 친로파의 우두머리였던 명성황후를 살해함으로써 조선봉건정부의 친로정책을 친일정책으로 돌려세우려고 꾀하였던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처럼 제놈들의 흉악한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한 나라의 황후, 국가권력의 대표자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살인귀들의 무리였다.

2. 을미사변은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로범죄행위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유린한 특대형의 범죄행위인 동시에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로범죄행위였다.

을미사변이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로범죄행위였다는것은 이 사건의 도발목적과 도발과정, 뒤처리 등 모든 사실이 립증해주고있다.

을미사변의 도발목적은 조선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세력팽창을 가로막고 저들의 독점적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일본은 이를 위하여 당시 친로파의 우두머리인 명성황후를 제거함으로써 저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고 하였다.

조선봉건정부의 친로정책을 친일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최상의 방도를 명성황후살해에서 찾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주조일본공사 이노우에를 내세워 조선봉건정부 내부대신인 친일분자 박영효를 리용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하기로 꾸미였다.

일본외상 무쯔 무네미쯔가 1895년 5월 22일에 작성한 비밀계획에 의하면 이노우에가 일본으로 귀환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박영효를 통해 명성황후를 암살하도록 되여있었다. (《일본외교문서》 제28권 1책 일본국제련합회 1953년 423~424페지) 이노우에는 일본정부의 지시로 1895년 여름 귀국하기 며칠전 조선봉건정부 궁내부 《고문》으로 있던 오까모또 류노스께를 만나 박영효를 리용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하기 위한 비밀모의를 하였다. 비밀모의에서 이노우에가 박영효를 리용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하도록 할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자 오까모또는 《박영효는 정부의 신임을 잃고있으며 군대를 움직일 신망도 없으니 잘못하면 갑신정변때와 같은 일을 저지를수 있다.》고 하면서 이노우에의 제기에 선뜻 응해나서지 않았다.

당시 박영효는 조선봉건정부안에서 친일세력들의 정치적지반을 닦기 위한 권력쟁탈소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미움을 받고있던 인물이였다.

이러한 박영효에게 명성황후암살임무를 주는데 대하여 오까모또가 선뜻 동의해나서지 않자 이노우에는 당시 조선봉건정부안의 《고문》자리를 차지하고있던 호시, 사이또 등이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박영효는 능히 황후암살임무를 해낼것이라고 하면서 오까모또를 설득시켰다.

오까모또와 합의를 본 이노우에가 박영효에게 황후암살임무를 주자 그는 《절대로 일본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제군들의 호의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과 군대도 자기가 틀어쥘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였다.

이노우에는 조선봉건정부안의 각부에 들어박혀있던 일본인 《고문》들을 불러놓고 《왕비와 박영효는 어느때든지 충돌한다. 그때에는 박영효를 도와서》 황후를 《제거하라.》는 과업을 주고 조선을 떠났다. (《조선교섭자료》 중권 비서류찬간행회 1936년 462~463페지)

그러나 박영효를 리용한 명성황후암살음모는 사전에 발각되여 파탄되게 되였고 박영효는 고종황제가 내린 체포령으로 일본공사관에 잠시 피신해있다가 일본군의 호위밑에 인천항에서 배편을 통해 일본으로 도주하였다.

명성황후암살미수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일본정부는 전면적파탄의 위기에 직면한 저들의 대조선침략정책을 역전시키기 위해 직접 명성황후살해음모에 나서게 되였다.

1895년 7월 일본정부는 이노우에를 참가시킨 내각회의에서 조선에서의 친일세력의 지반보존대책을 토의한 다음 이노우에를 다시 한성에 들여보내여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에게 각각 6 000원과 3 000원에 해당하는 보물과 300만원의 가짜행표를 뢰물로 주어 조선황실을 안심시키도록 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명성황후살해작전의 적임자로 극악한 군사깡패인 륙군중장 미우라 고로를 내정하고 그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임명하였다.

명성황후살해음모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1895년 9월 1일 한성에 기여든 미우라는 황후살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비밀리에 추진시켰다.

한성에 기여든 직후 미우라는 고종황제에게 《앞으로 부르지 않는 한 왕궁에 들어가지 않겠다.》느니, 《신의 거처에서 한양의 풍월을 즐기려고 한다.》느니, 《외신(미우라—인용자)은 불경을 외우면서 세상이 무사태평하기를 비는자이니 신의 손으로 관음경을 필사하여 왕후폐하에게 올리고저 한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피우며 자신을 《정치문외한》, 《풍류공사》, 《독경공사》 등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독실한 불교도였던 명성황후의 환심을 사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의 조선침략사》 1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5년 264페지)

미우라의 간특한 술책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는 미우라를 《평화공사》, 《부처님공사》로 부르면서 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었다.

이렇게 명성황후의 경계심을 누잦힌 미우라는 1895년 10월초부터 이미 일본에서 작성한 황후살해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실천대책을 세우는 등 살해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1895년 10월 3일 일본공사관비밀회의실에서 공사 미우라, 서기관 스기무라, 공사관 무관 구스노세, 조선봉건정부 궁내부 《고문》 오까모또 등의 참가밑에 꾸며진 최종계획에 의하면 일본의 군사경찰무력과 민간인폭도들을 주력으로 하여 무어진 살인집단으로 황궁을 습격하고 명성황후를 살해하도록 되여있었다.

미우라일당은 지어 저들의 살인범죄행위가 문제시되는 경우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원군을 황궁에 끌어들여 그와 명성황후사이의 권력쟁탈전에 끼여든 조선인훈련대가 정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살해한것처럼 사태를 날조하여 모든 후과를 대원군에게 넘겨씌우려는 흉계까지 꾸미였다.

명성황후살해거사날자는 10월 10일로 정해졌으며 총지휘는 미우라자신이 직접 맡고 참모장격은 오까모또가, 군대지휘는 구스노세가, 경찰에 대한 지휘는 령사관 경부 하기하라가, 민간인폭도들에 대한 지휘는 《한성신보》사장 아다찌가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미우라일당은 명성황후살해에 일본군수비대 450명과 일제침략군에 의해 훈련받은 조선인훈련대 200여명, 일본공사관 경찰 및 일본민간인폭도 50여명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봉건정부에서 조선인훈련대에 대한 해산명령을 10월 7일에 내리고 8일부터 무장해제시킬것이라는 뜻밖의 정보가 미우라일당에게 들어왔다.

그리하여 명성황후살해거사를 10월 8일로 앞당기기로 결심한 미우라는 10월 6일 급기야 오까모또를 대원군에게 보내여 이번 거사에 가담할것을 강박하고 감언리설로 업어넘겨 다짐을 받아내도록 하는 한편 일본군수비대 대장 마야하라에게 명성황후살해음모에 수비대를 동원시킬데 대한 긴급명령을 내리였다. 이에 따라 마야하라는 10월 7일 각 중대장들에게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 같은 날 미우라는 친일매국역적들인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 리두황 등에게도 출동명령을 떨구었다.

일제야수들에 의하여 무서운 흉계가 꾸며지고 바야흐로 피비린내나는 참사가 벌어질 시각에조차 조선봉건정부통치배들의 각성이 극도로 해이된 상태에 있던 10월 7일 밤 10시경 오까모또는 30여명의 일본깡패무리들을 앞세우고 대원군을 끌어내기 위해 떠났고 일본군수비대 독립제18대대의 병력 450명은 마야하라의 지휘밑에 조선인훈련대를 앞세우고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였다.

10월 8일 새벽 일본침략군 살인집단이 경복궁앞에 도착하자 오까모또는 살인무리들에게 《입성한 다음 여우(명성황후—인용자)를 림기처분하라.》는 비밀지령을 주었다.

오까모또의 지휘밑에 일본살인집단은 훈련대를 내몰아 황궁수비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리게 하고 저들은 사다리를 타고 궁성벽을 넘어 황궁에 침입하였다.

일본살인강도단은 시위대 련대장을 살해하고 황제의 거처지인 건청궁에 침입하여 황제(고종)와 황태자를 감금한 다음 황후의 침전인 곤녕전에 뛰여들어 명성황후를 색출하기 위해 피에 주린 이리떼처럼 돌아쳤다. 살인악당들은 이미 사진을 통해 명성황후의 얼굴모색을 눈에 익혔지만 숱한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나는 혼잡속에서 황후를 쉽게 찾을수 없었으므로 맞다드는 궁녀들을 모조리 칼로 치고 찔러죽였다. 살인악당들은 궁녀들을 모조리 죽이면 그가운데 명성황후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일본살인악당들의 이러한 궁녀살해만행으로 황궁은 삽시에 일대 살륙장으로, 피바다로 전변되였다.

궁녀들에 대한 야수적인 살해과정에 일본살인악당들중의 한놈이 곤녕전의 한 으슥한 방에 숨으려고 하는 복장이 수상한 《궁녀》를 발견하고 다짜고짜로 그의 머리칼을 거머쥐여 넘어뜨린 다음 일본도로 내리쳐 절명시켰다. 그가 바로 명성황후였다. 일본살인악당들은 저들이 이미전에 명성황후의 양딸로 황궁안에 잠입시켰던 년을 통해 방금 칼에 맞아 쓰러진 녀인이 명성황후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일제살인마들은 아직 완전히 숨을 거두지 않은채 피를 흘리고있는 명성황후를 홑이불에 둘둘 말아 밖에 내다놓고 살아남은 궁녀들을 통해 최종확인한 다음 곤녕전부근의 록산 소나무숲에서 이미 준비해놓았던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불태워죽이였으며 타다남은 몇개의 뼈쪼각마저 저들의 범죄흔적을 없애기 위해 부근의 못속에 집어던졌다.

바로 이것이 력사에 을미사변으로 전해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명성황후에 대한 야만적학살만행의 진상이다.

미우라를 괴수로 한 일본살인악당들의 명성황후살해사건의 전과정은 을미사변이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의해 꾸며지고 감행되였다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다.

을미사변이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되였다는것은 이 사건에 대한 뒤처리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을미사변에 대한 내외의 항의와 비난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는 조건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형식상이나마 명성황후살해사건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놀음을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한성주재 일본령사 우찌다는 일본외무성에 보낸 《사건선후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이 지나갔고 일본인들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더는 숨길수 없게 된 조건에서 일본공사관이 그에 대한 《취조》를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을수 있으므로 10월 12일 《취조》놀음을 벌리겠다는것과 함께 관계자(경찰과 민간인)들을 모여놓고 《취조》시 답변할 말까지 짜놓았다는데 대하여 통보하였다.

우찌다의 보고내용은 한마디로 명성황후살해사건은 심상치 않은 사건이므로 기만적이며 형식적인 《취조》놀음이라도 벌려야 하며 《취조》받는자들로 하여금 제각기 허튼소리를 하지 않도록 이미 짜준대로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우찌다가 짜놓은 대답이란 일본인들은 명성황후를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원군을 호위하기 위해 황궁으로 들어갔으며 황궁에서 칼부림질을 한것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조선사람들뿐이며 일본인들은 전혀 그에 관계하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명성황후살해사건의 책임을 조선사람들에게 넘겨씌우기 위하여 얼마나 교활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것은 조선봉건정부안의 친일분자들을 강박하여 당시 군부협판 리주회, 친위대 부위 윤석우, 일본공사관 로무자 박선을 명성황후살해범인으로 체포심문하고 교수형에 처하게 한 이른바 《리주회사건》의 조작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성은 우리 인민과 조선주재 외교단의 강한 항의와 규탄에 못이겨 마지 못해 벌려놓은 《취조》놀음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에서 벌려놓은 《취조》에서 범인들에 대한 《취조》를 담당한 공사관 경부놈자신이 명성황후살해만행의 공범자였다. 따라서 살해사건에 관한 《취조》는 혐의자가 혐의자를 취조하는 괴이한 형식으로, 그것도 미리 짜놓은 약속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일본공사관이 《취조》를 통하여 꾸며낸 《조서》의 내용은 미리 짜놓은 그대로였다.

그러므로 이 《조서》로써는 누가 명성황후살해범인인지 알수 없었다. 이것은 놈들이 벌린 《취조》놀음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진행되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 기만극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취조》를 받은자들을 다시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보내여 《심문》을 받게 하는 새로운 기만극을 꾸미였다.

《히로시마옥》이라고 불리워진 새로운 연극의 기만성은 《심문》을 받게 된자들이 히로시마근처의 우지나항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의 여러곳에서 모여온 반동정객들이 피고자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동정》하였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일본인자신이 실토한바와 같이 마치 《개선장군을 환영하는것과 같은 열광적인 환영》을 하였다고 말한데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일제의 조선침략사》 1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5년 271페지)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미리 짠 계획에 따라 《예심종결서》에서 《피고자들에게는 왕후를 살해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미우라를 비롯한 피고자 48명을 재판에 기소조차 하지 않고 모두 무죄로 석방하였다. (우와 같은 책 271페지)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명성황후살해의 주범인 미우라가 히로시마감옥에 잠시 감금되였다가 무죄석방되여 도꾜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 《천황》이 측근을 보내여 을미사변의 《공로》를 치하하고 위로까지 해준 사실이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을미사변의 도발, 명성황후살해사건이 전적으로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감행되였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립증해주고있다.

3. 을미사변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보여준 날강도적범죄행위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유린한 특대형의 범죄행위, 일본정부에 의해 직접 감행된 국가적인 테로범죄행위인 동시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잔인성, 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낱낱이 보여준 날강도적범죄행위였다.

일본살인악당들이 감행한 명성황후살해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가 없는 가장 야수적이고 잔인한 살인만행이였다.

명성황후살해만행의 야수성과 잔인성에 대하여서는 당시 일본살인악당들의 만행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후날에 조사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일본살인악당들의 명성황후살해만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로씨야사람인 사바찐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나는 왕비의 거처에서 2개방의 보초를 서고있던 일본인과 1명의 일본장교를 보았다. 그리고 … 일본옷과 양복을 입은 20~25명의 일본인들을 보았다. 일본보초병들도 일본장교들과 똑같이 부동자세로 서있었다. 한 일본인은 오른손에 단도(유럽식단도, 칼날길이 8~10㎝)를 빼들고있었는데 보건대 그의 지시와 지휘밑에 일본인들이 소리치면서 조선녀인들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밖으로 내던지였다. 왕후거처의 마당에 내가 서있는 동안 일본인들은 10~12명의 녀인들을 창밖으로 내던지였다. … 왕후거처의 뜨락에서 내가 본 모든 조선녀인들이 살해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조선부르죠아민족운동사》(개정판)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9(2010)년 270페지)

당시 조선주재 로씨야공사였던 웨베르는 일본살인악당들이 황궁에서 감행한 명성황후살해만행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일본인들은 왕후와 궁녀들이 있는 방에 침입하였다. 궁내부대신은 일본인들을 맞받아 달려나가 … 용서를 빌며 두손을 들었다. 바로 이 순간 칼을 내리쳐 그의 두팔을 잘랐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일본인들은 〈어디에 왕후가 있는가?〉라고 웨치며 녀인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때 왕후가 복도로 달아나고 그뒤를 한 일본인이 달려가 그를 붙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의 가슴우에 뛰여올라 세번 발로 내리눌러 죽였다. (칼로 찔렀을수도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웨베르가 1895년 10월 9일 본국에 보낸 전보문 부록 2)

역시 명성황후살해사건의 목격자인 미국인 맥캔지는 《일본인들은 방 한구석에 숨은 몸집이 작은 녀인을 발견하자 머리채를 휘여잡은채 왕후가 아닌가고 따져물었다. 그 녀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몸을 빼여 마루로 탈출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에 불의의 칼질을 받은 녀인은 비명을 질렀다.

그옆에 있던 왕세자는 세번씩이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기는 하였으나 더이상 소리를 내기 전에 일본인들은 그 녀인을 덮쳐 살해하고말았다. 그리고 아마도 채 절명되지 않았을 왕후를 홑이불로 싸서 얼마 멀지 않은 록산의 소나무수림속으로 운반하고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고 증언하였다. (맥캔지 《조선의 비극》 63~64페지)

또한 당시 명성황후살해사건을 조사한 로씨야검사는 《왕후의 유해가운데서 땅속에 약간 묻힌 머리앞면뼈와 한쪽 손목이 발견되였는데 이것은 왕후가 칼에 맞아 부상당하였지만 목숨이 붙어있는것을 그대로 불에 태워죽였다는것, 불에 타죽으면서 머리와 한쪽 손을 땅속에 묻어 불을 피하면서 필사적으로 모지름을 썼다는 예측을 확증해주고있다.》고 증언하였다. (《조선문제에 관한 로씨야자료》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보관자료 132페지)

이상과 같은 당시 목격자들과 사건조사자들의 몇가지 단편적인 증언자료들만 보더라도 명성황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살해가 야만성과 잔인성의 극치를 이루는 살인만행, 범죄행위였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명성황후살해만행의 야만성과 잔인성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군국주의자들자신도 자인하였다.

명성황후살해사건과 관련하여 령사 우찌다는 일본외상대리 사이온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후궁(건청궁)에 침입한 한 무리의 일본인들은 방문을 밖에서 파괴하고 방안에 여러명의 궁녀들이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일본도를 꺼내들고 그 방에 침입하였다.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는 궁녀들을 잡아놓고 용모와 복장이 우아한 녀자부터 먼저 베여죽이였다. (이때까지 일본인들은 명성황후의 얼굴을 모르고있었다.) 그러나 그 방에 있던 녀자들은 나이로 보나 용모로 보나 왕후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들은 왕후를 놓쳤다고 속단하였다. 그러나 끝내 한명의 궁녀로부터 왕후의 얼굴 웃부분에 작은 반점의 곰보자욱이 있다는것을 알고 피살자들의 시체를 점검한 후 한명의 해당한 녀자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여러명의 궁녀들이 왕후가 틀림없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왕후의 시체는 미우라공사가 궁중에 들어온 후 하기하라경찰관의 지휘에 따라 록산의 소나무숲에 날라다 장작에 석유를 치고 불태웠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당시 조선봉건정부안에 《고문》의 탈을 쓰고 기여들었던 이시즈까 에이죠도 일본살인강도들의 명성황후살해만행광경에 대하여 일본법제국장앞으로 보낸 보고서에서 일본인들이 《참살당한 왕후를 끌어내여 발가벗긴 후 국부검사를 하고 히히닥거리였으며 마지막에는 기름을 들씌우고 불태웠다.》고 실토하였다.

참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한 명성황후살해만행은 동서고금의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살인만행이였다.

을미사변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만성과 잔인성뿐아니라 놈들의 파렴치성을 남김없이 보여준 대범죄행위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성은 을미사변의 진상을 가리우며 그 책임을 조선사람들에게 넘겨씌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한 사실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을미사변은 사건의 조작동기와 목적, 전개과정 등 모든것을 통해볼 때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의해 감행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엄중한 죄행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어리석은 타산밑에 을미사변과 저들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듯이 사태를 외곡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을미사변은 훈련대해산에 불만을 품은 병사들이 대원군을 업고 황궁에 들어오는 행정에서 조선사람들에 의해 야기된것이며 일본군대와 일본인들이 출동한것은 조선황제 고종의 요구에 의한 피동적인 행위로서 명성황후의 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획책하였다.

미우라놈은 명성황후살해후에 조작된 친일내각으로 하여금 을미사변은 《무기를 회수하고 훈련대를 해산하자는 〈론의〉에 〈격동〉된 훈련대원들이 〈왕궁안에 란입하여 분통함을 호소〉하던 행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즉시로 진압되고 왕궁은 무사하니 백성들은 각자 그 업에 안착〉》하라는 《고시문》을 내게 하는 한편 《일본인은 살해를 하는 등 란폭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것과 《왕궁안에서 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인것은 모두다 조선사람이 한것》이라는 인증서를 저들에게 보내도록 하는 파렴치하기 이를데 없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본외교문서》 제28권 1책 1957년 498, 514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극을 통하여 명성황후살해사건이 조선사람들사이의 충돌에 의해 일어났으며 저들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여론을 퍼뜨림으로써 제놈들의 죄행을 은페하려고 획책하였다.

미우라는 사건발생직후 그 진상을 밝힐데 대한 로씨야공사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훈련대를 반대하는 당파가 훈련대와 순검사이에 분쟁이 일어난것을 구실로 훈련대를 해산시키려 하였으므로 훈련대 병사들이 대원군을 받들고 일으킨것》이였다느니, 《일본군대가 출동한것은 국왕의 의뢰에 따라 그 사건을 진압하기 위한것이였다.》느니 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뒤집어 대답하였다. (우와 같은 책 494~495페지)

이러한 기만극으로도 부족하여 미우라는 1895년 10월 9일 《한성신보》사장 아다찌로 하여금 《한성신보》에 제놈이 로씨야공사 웨베르에게 준 대답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어 을미사변의 진상을 외곡보도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교활하고 파렴치한 족속들이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성은 그후 조선봉건정부의 모든 력사자료들을 독점하고 명성황후살해사건과 관련한 기록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도록 함으로써 을미사변의 책임이 저들에게 있다는 론의가 다시는 벌어지지 못하도록 책동한 사실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그러나 력사의 진실은 그 어떤 기만행위로도 가리울수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을미사변의 도발로 저지른 만고대죄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그에 대한 사죄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9일
평 양

ㄱ-51130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